

믿음과 사랑으로 새 희망을

2019년 겨울 계간 66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9년 겨울

평신도



- **인 사** 인사말
- **소 식** 행사일정
- **특 집**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 **인터뷰** 손삼석 주교(부산교구장)
- **사 목** 교회의 삶과 사명안에서
- **만 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된다

- **나눔**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탐방** 서울순례2코스
국내성지순례완주
국내성지코스안내
- **순례** 중국 성지 2
불멸의 성지 예루살렘
- **이야기** 산우회
주보성인과 나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투고** My Way,
산티아고 길 위에서
- **동정** 교구평협
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CONTENTS

- 인사 02 손병선 회장
- 소식 04 12월-3월 행사 일정 / 염지유
- 특집 06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 최현순
- 인터뷰 14 손삼석 주교(부산교구장)
- 사목 19 손정명 수녀(선한 목자 예수수녀회)
- 만남 22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28 평신도가 뵈다 / 김주완
- 나눔 32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35 나의 신앙 선조 / 류하나
- 탐방 37 서울 순례길 2코스 / 김영숙
40 국내 성지순례 완주 / 전진신
44 국내 성지 코스 안내 / 권영빈
- 순례 46 중국 성지 2 / 김창완
50 불멸의 성지 예루살렘 / 김원창
- 이야기 55 산우회 / 최태교
60 주보성인과 나 / 김대현
- 투고 63 My Way, 산티아고 길 위에서 / 장서윤
- 배움 65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고종희
68 평신도 양서 / 김선동
- 동정 70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문태 힐라리오,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밀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박동삼 作(아멘, 세계 최대 한지 성미술 작품, 가로16m×세로11m) 경기 고양시 신원동 성 프란치스코 성당 소재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 제52회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

희망을 지니고 믿음에 충실하며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회장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선두 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의 첫 세례자 하느님의 종 이승훈(베드로)이 천주교 신앙을 더욱 깊이 배우고자 1783년 초겨울 동지사행 사절을 따라 북경으로 떠난 것을 떠올리며, 1968년부터 해마다 평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외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싹을 틔운 신앙 선조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본받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마카베오 형제들은 조상들을 통해 전해져온 하느님의 법을 어기라는 박해자들의 요구에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하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의 순교 선조들도 천주를 버리라는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습니다. 마카베오 형제들처럼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게는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굳센 믿음과 하느님은 당신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변치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희망을 우리에게 생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을 지닌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좋은 일과 좋은 말”(2테살 2,17)을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선두 번째 평신도 주일을 맞아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요청되는 두 가지의 실천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씬 운동’과 ‘감사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홍수 속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을 넘어,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은 절제하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요긴한 문명의 이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스마트폰 과다 의존에 빠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이 중독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그대로 둔다면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도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씬 운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절제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운전 중이나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등 적절하게 스마트 씬을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말이나 글,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 나눔 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함께하는 이웃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메말라가는 우리 사회를 촉촉이 적시는 사랑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한 번 감사의 글쓰기를 실천해 봅시다. 아침, 낮, 저녁, 하루 중 언제라도 좋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부부, 친구,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일기나 편지, 카드, 메일,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감사의 글쓰기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퍼져 나간다면 우리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도 그만큼 더 밝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 무엇보다도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불린 우리 평신도의 고유한 소명을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스마트 씬과 감사 나눔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0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강론자료 한글 파일과 한국평협 동영상은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 메인 배너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구평협·회원단체 2019년 12월~2020년 3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53회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8일(토)
- 장소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
- 문의 : 02-777-2013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50회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18일(토)
- 장소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
- 문의 : 02-777-2013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3월 7일(토)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정기총회

- 일시 : 12월 14일(토)
- 장소 : 정하상 교육회관

▶ 신년교례회

- 일시 : 2020년 2월 1일(토)
- 장소 : 교구청 회의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9 수원교구 상반기 회장연수

- 일시 : 2020년 3월 28일(토)~29일(일)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 문의 : 031-246-3660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신년하례 미사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주교좌 원동성당
- 문의 : 도호병 사무국장(010-7108-2068)

▶ 제51차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11일 오후 2시 ~ 12일 오후 1시
- 장소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배론성지)
- 문의 : 도호병 사무국장(010-7108-2068)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위원 연수 겸 총회

- 일시 : 2020년 3월 28일(토) ~ 29일(일)
- 장소 : 한마음 수련원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1일(토)
- 장소 : 가톨릭교육관
- 장소 : 055-249-7114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49차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1일(토) 오후 2~5시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문의 : 062-236-3004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4일(토)
- 장소 : 전주교구청

▶ 교구 신년하례식

- 일시 : 2020년 1월 8일(수)
- 장소 : 중앙주교좌성당

회원단체 행사 일정

꾸르실료한국협의회

▶ 제51차 전국총회

- 일시 : 2020년 2월 28일(금) ~ 29일(토)
- 장소 : 대구 한티 피정의집
- 문의 : 055-388-5734

WWME 한국협의회

▶ WWME 한국협의회 상반기 총회

- 일시 : 2020년 2월 29일(토) ~ 3월 1일(일)
- 장소 :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한국천주교지속적인성체조배회

▶ 한국 천주교 지속적인 성체조배 전국 총회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 6일(금)
- 장소 : 한남동 쏜벤티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백성을 이루어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최현순 교수 / 서강대학교



들어가는 말: ‘공동합의성’의 개념

“공동합의성의 여정은 3천 년 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다.”

2015년 〈교황청 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대 교회가 걸어야 할 길로서 공동합의성(synodalitas)을 제시한다. 교황에게 있어 공동합의성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적 요소이다.

공동합의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표방한 교회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다. 공의회는 교회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일부 집단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충만한 구원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보편교회의 주교단, 대륙별 및 국가별 주교회의, 교구 사제평의회 및 사목평의회, 본당 사목협의회 등이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기구이다. 최근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공동합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합의성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합에 있는 데

에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항)

공동합의성은 단순히 의사 결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방식’이요 ‘실존방식’, ‘활동방식’을 말한다.

1. 신학적 전제: 하느님 백성

1) 교회, ‘하느님 백성’

공동합의성 개념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해에 근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계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전제로서 교회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전망은 교계제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보던 것과 비교할 때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계제도에 속한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christifideles)’로부터, 성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성품성사로부터가 아니라 세례성사로부터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공의회는 평신도만이 아니라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세례받은 사람들 전체’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정의한 후 교계제도보다 먼저 다룸으로써 교계제도가 하느님 백성 ‘위’ 혹은 ‘밖’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 백성 전체가 하느님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계제도는 이러한 부르심에 봉사하기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신자들 또한 교회 전체의 사명 수행을 위해 목자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2) 하느님 백성의 실존방식: 친교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본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동교회처럼 각 사람들이 우연적으로 만난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몸인 공동체로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성의 강조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그 기원과 목표를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삼위일체적 구원경륜으로부터 생겨났고, 존재하며 그 구원사업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았고, 또한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이다. 따라서 세 위격간의 친교(koinonia)는 교회의 근원이자 모델, 목표이며, 이 친교는 교황과 주교들, 목자와 신자들, 지역교회들간의 관계,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관계, 나아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목표이다. 『교회헌장』은 교회가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자 도구”라고 선언한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1항)

그러므로 교회의 실존양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친교’이다. 친교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상호 관계성, 그리고 ‘공통적인 것에 함께 참여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았고, 같은 성령의 도유를 받았다. 또한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이들은 하나의 동일한 사명, 곧 모든 시간과 공간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현할 사명을 받았으며,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역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 여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또 그것을 지향하며 걸어가는 여정 동안 형제들과 친교를 이룬다. 이러한 교회 이해로부터 ‘함께 가는 사람들’, ‘동반자’ 간의 공동합의성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 2019년 10월 19일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열린세미나 장면



▲ 2019년 10월 19일 열린세미나의 synodalitas 주제 발표

2. 함께, 그리고 저마다 제 길에서: 공동 합의성의 구체적 실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교회 자신이 궁극적으로 충만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봉사하도록 하느님은 교계제도를 세우셨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의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실제로, 거룩한 권력을 가진 봉사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질서 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교회헌장』 18항)

공동합의성이란 교회 구성원 모두의 실존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교계제도에 속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관계도 포함한다. 더욱이 교계제도가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할 때, 목자와 결합된 신자들의 활동은 공동합의성을 가장 탁월하게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1) 하느님 백성의 직무 수행에 나타나는 공동합의성

하느님 백성이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전체라고 정의할 때, 이 백성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에 참여한다. 공동합의성의 실현은 이 직무들의 수행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1)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공동합의성: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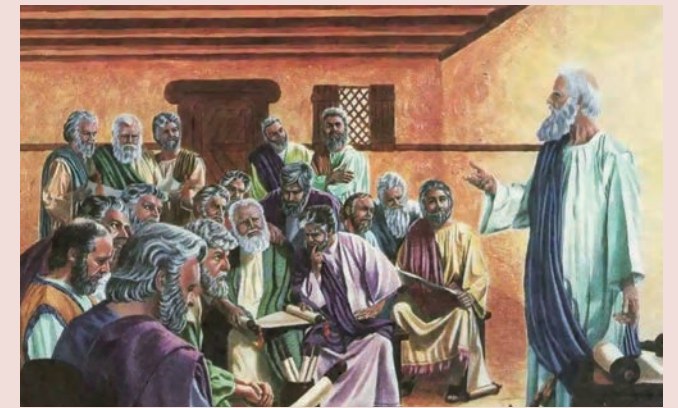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개념에 대등보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사제직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가는 여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보편사제직은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서, 세례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고(로마 6,3-4)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스스로 제물이요 사제가 되셨으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느님을 증거하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이 사제직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십자가에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실존 전체에서 수행된 것처럼 보편사제직이 수행될 수 없는 영역이란 없다.

“그들의[평신도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곳곳이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되고(1베도 2,5 참조),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교회헌장』 34항)

그런데 보편사제직 수행은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특징을 갖는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보편사제직은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사제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즉,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개인의 능력은 전체로서의 교회가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한 전제요 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의 봉헌이 개별적 봉헌의 총합인 것은 아니다. 이 봉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하는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사제직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장이 전례이고(『전례헌장』 7항 참조) 이 중에서 성찬례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모든 전례 거행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활동이며, 모든 전례 거행의 1차적 집전자는



▲ 예루살렘 사도회의(출처 2000yearsofjesus)

그리스도이시고, 제단에서 자신을 봉헌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다(SC 7 참조). 직무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찬의 희생제사를 온 백성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신자들도 성찬의 봉헌에 참여한다. 다시 말해 ‘목자와 결합된 신자들 전체’ 곧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사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들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제와 ‘함께’ 희생제물을 봉헌한다.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LG 11)한다. 공의회는 직무사제의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그러면서도 직무사제의 봉헌이 신자들과 분리되어서 일어나지 않으며 이 봉헌에서 신자들의 역할 또한 지극히 능동적임을 강조한다. 성체성사에서 공동합의성은 탁월하게 나타난다.

신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치는 희생제사가 제단의 희생제사와 함께 하느님께 봉헌됨으로써 사제적 백성의 직무 수행은 정점에 도달한다. 개인적 희생제사와 제단의 희생제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의 성격을 보면 분명히 이해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신 십자가의 희생제사는 당신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십자가 희생제사는 온 생애를 성부의 뜻에 따라 사셨던 그분 삶의 결정적 완



▲ 2019 열린세미나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의 패널토론

성이다. 그리스도의 '실존적 희생제사'와 '십자가 희생제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실존적 희생제사는 십자가에서 그 충만에 도달한다. 신자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실존적 희생제사이고, 이 희생제사는 성찬례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결합됨으로써 그 완성에 도달한다. 이어 성체성사는 다시 신자들로 하여금 삶 안에서의 실존적 희생제사를 바치도록 고무하고 파견한다. 그러므로 하느님 백성의 보편사제직의 수행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으로써 준비되고 성찬례에서 절정에 도달하며 다시 개인의 삶으로 파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편사제직이 없는 직무 사제직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직무 사제직이 없는 보편사제직은 그 충만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성체성사는 이 두 사제직이 '하나로 모여' 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장이고 따라서 공동합의성이 탁월하게 실현되는 장이다.

(2) 예언적 수행에서의 공동합의성: 신앙감각과 교도권

보편 사제직의 수행은 예언적의 수행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예언적 기능 안에서 신앙유산이 교회를 살아있게 한다. 세례 받은 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몸 전체의 사명에 참여하지 않는 지체는 하나도 없으며, 각 지체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언자의 정신으로 예수님



▲ 예루살렘 사도회의(출처 Globe International)

을 증언해야 한다.”(『사제교령』 2항) 그리고 사제직의 수행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는 주체는 무엇보다도 세례받은 신자 전체, 곧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특히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활로 그리스도께 대한 생생한 증거를 널리 전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친다.”(『교회헌장』 12항)

삶의 증거와 찬미라는 형태로 수행되는 예언자직에서 공의회는 특별히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보편적 동의를 표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교회헌장』 12항) 공의회의 이 가르침의 근원에는 세례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신앙감각(sensus fidei)을 일으키시어 이 백성에게 위탁된 진리의 말씀이 보호되고 전파되는데 있어 오류가 없게 하신다는 신앙이 있다.

“신자들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 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지닌다. 이러한 초자연적 본능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친교 안에서 받은 신앙의 은사와 본질적으로 결합된 신앙감각이라고 불린다. 이 신앙 감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예언자적 소명을 완수하도록 해 준다.”(『교회생활에서의 신앙감각』, 2항)

신앙감각은 오감과 같은 '감각'이라기보다는 '식별하고 동의하는, 혹은 배척하는' 인지적 차원을 동반한 일종의 직관이다. 이 신앙감각으로 인해 신자들 전체가 신앙과 윤리에 대한 문제에 동의를 표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회가 세례 받은 이들이 총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그리고 각 개인이 그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신앙의 증언은 세례받은 이들의 의견의 총합이 아니라 교회의 동의, 하느님 백성

의 소리(vox populi Dei)이다.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예언적 수행에 있어서 공동합의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교도권은 직무 사제직이 보편사제직 '속'에 위치한 것처럼, 예언적 수행에 있어서도 하느님 백성 '속'에 위치한다. 교도권은 하느님 백성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감각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 교도권은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신앙을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감각이 성령에 의한 것으로서 신앙유산의 전달과 보호에 대한 것이며, 신앙 유산이 교도권이 가진 금고 속에 있는 보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게시헌장』 8항)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 하느님 백성 속에 살아있는 성전을 들어야 한다. 물론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때로 백성이 성령의 움직임을 잘못 알아듣기도 하기 때문에 교도권은 신자들 안에 있는 신앙감각을 강화하고 식별하고 판단한다.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 안에서 신앙감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이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하게 하시고 교도권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 백성을 인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백성과 교도권 사이에 교도권 중심의 일방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서로를 '향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의 신앙감각과 교도권 사이에도 호혜성이 있다. 하느님 백성이 교도권의 설교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하느님 말씀에 의해 양육되면 될수록 하느님 백성 전체 그리고 각 개인들의 신앙감각은 더 정제된다. 반면 설교가 살아있지 못하고 제대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느님 백성은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교계제도에 속하게 될 어린아이, 젊은이에게 신앙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교계제도만이 아니라 가정, 주일학교, 본당에 있는 하느님 백성이다. 그

리고 사제가 된 후에 하느님 백성 속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소리를 통하여 사제 또한 성장한다. 그러므로 교도권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도 호혜성, 일종의 '비례성'의 법칙이 있다.

2) 공동합의성의 실현

(1) 다양한 수준에서의 공동합의성의 실현 및 제도적 설립

공동합의성이 하느님 백성의 개념, 친교, 그리고 이 백성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참여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합의성은 교황, 주교, 혹은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 등 몇몇 사람들만의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한 사람(one)-몇몇 사람(some)-모두(all)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이다. 교황과 주교단, 주교와 사제단, 사제와 신자들, 혹은 교황과 신자들 전체, 주교와 신자들처럼 '하나-몇몇 사람-모두'는 다양한 수준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현한다. 그래서 공동합의성은, 보편교회, 지역교회, 여러 개별교회들을 포괄하는 광범위 지역 차원, 그리고 본당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회생활 전체에 대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공동합의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나, 교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규정한 제도들은 이후 발전하게 될 공동합의성의 정신을 실현하는 도구들이 된다. 교구의 의전사제단, 참사회, 사제평의회, 사목평의회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사목평의회는 주교가 사제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 곧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자문기관이다.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주교교령』 27항)

(2)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하여: 경청과 협력의 중요성

교황 프란치스코는 공동합의적 과정의 단계를 경청, 결정, 실행으로 보았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작하고”,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박사”로 불리도록 초대된 “로마 주교의 소리를 들음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하느님 백성, 주교단, 로마의 주교, 곧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 과정의 주체들이다.

사실 공동합의성 실현에 있어서 경청은 1단계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이며 전 과정이 속해 있어야 하는 매트릭스 같은 것이다. 경청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양한 경우에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주교는 아랫사람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기꺼이 협력하도록 권고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교회헌장』 27항).

경청은 신자들과 일하는 사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된다.(『사제교령』 9항 참조) 이렇게 ‘들어야 할’ 목자의 의무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상응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그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자기 견해를 밝힐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LG 37)

교황 프란치스코는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담화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나의 공동합의적 교회는 주의를 기울여 듣는 교회, 그 들은 바를 실현하는 교회이며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서로 듣는 것으로써 모든 이가 들어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신자 백성, 주교단, 로마

의 주교 모두 서로 들어야 하고 모두가 성령의 소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청은 목자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다. 신자 백성(전체), 주교단(몇몇), 그리고 로마 주교(하나)에 이르기까지 상호 경청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청이 필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이해, 그리고 직무자가 하느님 백성 ‘위’에도 ‘밖’에도 아닌 하느님 백성 ‘안’에 위치하며, 교회 내 구성원 누구도 다른 구성원들과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함께 가는 여정에서 각자의 몫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같은 성령께서 교회 전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고립된 채 독립적으로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길을 간다. 이 여정의 동반자로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형제, 친구, 협력자, 협조자로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공동합의성의 실현이 좌우된다.

협력자 혹은 협조자라는 용어는 주교와 사제들의 관계를 말할 때 종종 사용되는데,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교회헌장』 28항)로서 주교의 신중한 협력자(『주교교령』 15와 28항), 교구 통치에 있어서 주교의 협력자(『주교교령』 29항)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에도 사용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관련되는 이 사도직에 더하여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 안에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며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 저 사람들처럼(필리 4,3; 로마 16,3 이하 참조), 교계 사도직과 더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불릴 수 있다.”(『교회헌장』 33항)

한편 실천적인 면에서 협력자의 개념을 단순 ‘조력자’로 축소시키는 것은 공동합의성 개념에



▲ 예루살렘 사도회의(출처 Reading Acts)

부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동합의성은 함께 가는 사람들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동반자로 보면서, 각자 제 몫을 하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만약 협력을 단순 조력으로만 보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상하관계, 혹은 일방적 의존관계에 머물게 된다. 공동합의성의 실현은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의 일’을 위한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 구성원이 공통의 활동에 각기 고유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간과되면 안 된다.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이가 고유의 방법으로 공동 활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안다.”(『교회헌장』 30항)

나가며

20세기 공의회 이후 특히 최근 가톨릭교회는 ‘함께 가는 길’을 그 핵심적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동합의성의 실현 여부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각 구성원들은 서

로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되,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LG 32 참조) 목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무사제직과 교도권을 수행하고 신자들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성령으로부터 도유되어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예언직을 수행한다. 이 둘의 직무 수행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는 상호지시적 관계 안에서 그리고 호혜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둘은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감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의존적으로 기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을 수행하면서 가는 것이고, 동시에 상호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서로 각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가는 것이다.

따라서 목자에게든 신자에게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게으름과 무지는 설 자리가 없다. 한국교회가 쇠신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혹은 함께 가기에는 평신도의 준비상태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그 모든 책임은 평신도에게만도 목자에게만도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목자의 탓이라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목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모든 것이 평신도의 탓이라면 그것은 목자의 역할뿐 아니라 평신도와 목자 사이의 불가분리적 연관성을 간과한 것이다. 목자와 신자들은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이고, 각자 자기 몫이 있으며 그 몫에는 다른 쪽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혹여 동반자가 자신의 사명에 소홀하다고 하더라도 동반자의 게으름이 나의 게으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교회는 개인주의자들의 모임, 혹은 예수 동호회가 아니라, 하느님이 백성을 이루어 당신을 섬기게 하신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이 제 몫을 충실히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가운데에 하느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새롭게 착좌한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일시 2019년 10월 10일 오전 1시 30분

장소 부산교구청 교구장실

대담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장

본 잡지는 2019년 6월 4일 제5대 부산교구장 착좌식을 가진 손삼석 주교님을 찾아 부산교구청을 방문하여 사목방침과 교구 발전방안 등 제반 문제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부산교구는 평신도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공동합의성’이라는 주제로 평신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대담 후에는 교구청의 협조를 얻어 착좌식이 거행된 주교좌 남천성당의 대성전과 외부 촬영도 진행하였다. 대담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하여 관련 영상을 VR로도 볼 수 있다.(편집자 주)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장(이하 편집장): 주교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착좌식을 하시고 몇 달이 지나 많은 일정을 마치고 조금은 안정이 되셨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담 신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취임하시면서 정하신 사목목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삼석 부산교구장(이하 교구장): 네,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까지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보좌주교로서 총대리로 일하면서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보조를 맞추었기에 새롭게 사목목표를 정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발전적인 일은 되도록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안고 있고 노력해야 할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줄어드는 주일미사 참여자 수와 늘어나는 냉담자 수에 대한 고민과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목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문제

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가장 큰 고민은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목의 어려움입니다. 각 교구의 담당 신부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해도 해결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2018년 의정부교구에서 ‘한일주교교류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도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본양국 청소년들의 주교들에 대한 건의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구로 돌아오자마자 청소년사목국장 신부님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두 해를 ‘청소년의 해’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 두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 ‘청소년의 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위원은 청소년과 사목에 관련된 신부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두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결실을 볼 것인가는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장: 부산교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구장: 직전의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구 발전이라 함은 영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발표하는 사목지침과 세부 실천사항을 통해서 사목자들과 교우들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합니다. 사목자들과 교우들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할 사안은 영적인 면입니다. 문명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신앙과 종교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인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 손삼석 주교와 편집장



▲ 제5대 교구장 착좌식(2019년 6월 4일)

손삼석 요셉 주교 약력

1955년 부산 출생

1973~198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석사

1982. 2. 6 사제수품

1988~1992 로마 우르바노 대학

(성서신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1994~2001, 2008~201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학장 역임

2001. 2. 13~2006. 12. 18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2010. 7. 9 부산교구 주교 서품, 총대리 주교 역임

2018. 8. 18 부산교구장 서리

2019. 4. 10 부산교구 제5대 교구장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위원장, 성서위원회 위원장,

복음선교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좀 더 기도와 묵상의 분위기를 살려 영적인 면에 치중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노력하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편집장: 교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국제협력이나 파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 대학이나 기관 등은 국제적으로 협력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은 그쪽에 맡기면 되고, 교구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협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 파견 등은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한 뒤 사제들을 파견한 교구는 일본 히로시마 교구입니다. 현재 세 분의 사제가 나가서 현지인들의 본당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남미와 중국에 각각 한 분씩 사제를 파견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두 분의 사제를 외방선교회를 통해서 해외로 파견하기로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체험과 언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제들을 해외 선교를 위해 파견하고 싶는데 성소부족으로 인하여 사제 수가 문제가 됩니다.

편집장: 교구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평신도들과 소통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교구장: 평신도를 대표하는 교구 평협이 있고 회장님이 계시니 소통의 장은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구에나 다 있는 일입니다. 단지 평신도와 더 나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격년으로 교구의 제 단체와 그 책임을 맡은 분들과 대화와 건의의 장을 마련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제 단체의 수가 워낙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나 건의 사항 등 제 단체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 평신도 회년을 맞아 교구에서 '평신도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 안에서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더불어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호응도 매우 높아 2019년 올해에도 제2차 '평신도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공동합의성(Synodalitas)'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평신도와 소통하는 기회와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각 본당의 사목방문 때 사목위원을 포함한 교우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본당의 애로사항 내지 건의 등을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공적으로는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언제든지 만남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편집장: 마지막으로 평신도 잡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5대 교구장 착좌식 기념

사목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손정명 수녀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 남천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 하늘에서 본 부산교구청과 남천성당

교구장: 평신도 사명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알게 모르게 세속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평신도들께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간지 『평신도』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편집장: 교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산교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평신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공동합의성’을 이루시어 좋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에서도 평신도 잡지를 위해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신 주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손삼석 부산교구장 착좌식 사진은 천주교 부산교구 전산 홍보국에서 제공하였으며, 기타 사진들은 평협 홍보소통위원회 김영훈 바오로 형제가 제공하였습니다.(편집자 주)



부산 주교좌 남천성당 외부



부산 주교좌 남천성당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일치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일치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입니다. 여기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관련된 본당 상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본당에는 사목협의회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당의 각 단체에는 많은 평신도 봉사자들이 존재하며 공동합의적 삶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와 평신도 또는 평신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곳도 종종 나타납니다. 이유 가운데 흔히 성직자 중심주의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대화 부족, 그리고 평신도들 간의 대화 부족 및 인간적 미성숙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목적 지향에 따라 본당이 운영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제들의 착한 목자 영성이 심화되면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를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기능인으로서 이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면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1990년도에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Modena)에서 목자와 양 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초원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풀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양들이 귀를 모두 쫓긋 세우며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니까 목자는 저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양몰이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쿵쿵 치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까 양들의 귀가 역시 쫓긋 세워지면서 모두 저를 향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겁이 났지만 계속 서 있었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던 양들이 자기들 목자가 아님을 알고 즉시 모두 등을 돌리고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동행했던 수녀님에게 사진을 빨리 찍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언뜻 보면 양들 중앙에 있는 목자처럼 제가 보이지만 실제로 그 양들은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 만이라도 등을 안 돌렸으면 고마웠을 텐데 하고요. 이어서 목자의 양몰이 사투리를 어설프게 흉내 내니까 괴상한 소리에 양들의 귀가 모두 초긴장 상태로 듣다가 진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뒤에는 다시 풀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신호를 보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양이 즉시 귀를 쫓긋 세워 목자의 소리를 확인한 뒤에 무리를 지어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떼를 지어 움직이는 그 장면이야말로 장엄한 예술 중의 예술이었습니다. 목자는 2개의 막대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양 떼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긴 지팡이로는 양들이 이동할 때에 목자가 땅을 치면서 인도를 하는데 양들은 그 진동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기에 비록 눈으로 목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해도 지팡이의 울리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본 여러 그룹의 양들은 언제나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픈가 봅니다.

목자와 양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풀밭과 물을 찾아 양들을 인도하고 그것으로 양육하며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뉠의 고유한 역할수행 속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착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일한 목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목자였고 라헬 역시 소녀 시절에 이미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목자의 세계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본당사제는 예수님의 양이며 또한 목자이고, 본당의 사목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봉사자들 역시 착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동료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목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의 성직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착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교의 삶을 살아 자신의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을 포함해서 중요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이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아주 성당과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본당에서 봉사합니까? 혹시 본당사제들 또는 다른 곳에서 시선이 집중되어 하느님을 멀리 보내드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동기와 자신의 영적 생활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끔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중심인지 기도의 삶 없이 인간적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 중심인지를 보

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성찰 부분입니다. 본당사제들이나 봉사자들은 본당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지만 사목적 열정이 거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성 생활을 통해 하느님 체험이 좀 더 심화할수록 그분의 양들을 돌보고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목적 열정이 더욱 강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도구로 쓰일 다양한 측면의 협력자들의 중요성을 느끼며 함께 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상호 존중의 태도와 서로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대화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계제도를 보통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이 ‘역삼각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삼각형의 정점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단을 두셨고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미지는 역삼각형처럼, 그 정점이 밑변의 아래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자’(ministry)라고 불립니다.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이라는 의미에 서입니다. 역삼각형은 사제들은 물론이고 본당의 각 단체 봉사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겸손한 태도의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연민의 눈으로 시대의 징표를 인식하면서 물질적, 영적,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여정에 동반자들의 노력이 있을 때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목자를 구분하는 양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교회 돼야”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김용무 미카엘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의정부교구 평협은 전국 평협 가운데 막내다. 2013년 사도직단체 대표들이 모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6월에 본당의 평신도 봉사자들까지 참여하는 의정부평협으로 확대해 공식 창립했다. 교구 설정 15년 만의 경사였다. 의정부평협은 평협 조직으로는 막내이지만 평신도 활동의 핵심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이어가는 데에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젊은 평협이다. 의정부평협의 신조인 ‘함께 걸어가는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

김용무 회장(69)은 본지의 취재 요청에 특별할 것 없는 봉사자를 맡았는데 교회 언론과 방송이 평협 창립에 큰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기도 하고 적잖이 부담이 된다고도 했다. 회장으로서 조직을 강하게 이끌고 나가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고 했다. 신앙인으로서 봉사자로서 ‘서번트 리더십’이 몸에 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신 김용무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늦었지만 평협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의정부평협은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요?

의정부교구 평협은 올해 6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본래는 10년 전에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전임 교구장님이 떠나고 새 교구장님이 오시면서 잠시 보류한다는 것이 그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평협도 현재와 같이 본당과 교구 사도직 단체를 두루 아우르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은 평단협 중심으로 운영해오다 작년에 현 교구장이신 이기현 주교님의 요청으로 평협 출범 준비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의 경험과 그동안 의정부교구에서 추구해온 사목방향, 보편교회 지향을 반영하기 위해 출범 전 연구 소모임을 만들어 반년 간 운영했습니다. 이때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교구는 시노달리티(Synodality, 공동

합의성)이라고 불리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를 신조로 내걸었습니다. 공동합의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핵심으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화합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특히 평신도 교육에 많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의정부평협은 크고 작은 자체 행사를 치르는데 힘쓰기보다는 교육과 양성에 치중하고, 교구 사목활동에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일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이 방향을 본당사목회장, 교구 사도직 단체장들과 공유한 뒤 교구장님의 재가를 얻어 순조롭게 출범했습니다.

“공동합의성”으로 교회 운영도 결정해야

❖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서로 겸손하게 화합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함께 걸어가는 교회’는 시노달리티의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는 교회’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수동적이고 자기 신앙생활에 소극적인 모습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사제, 수도자들과 더불어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려면 우리 평신도들이 지금보다 기도도, 공부도, 활동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교회 안에서 모든 신원이 함께 걸어가는 것도 신원 간 균형이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6월 29일 의정부평협 창립미사는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가 집전했다. 이기현 주교는 “모든 단체와 교회 구성원이 함께해 나가는 사목, 모든 분이 함께 본당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6월 29일 주교좌 의정부성당에서 가진 평협 창립미사. 기존 17개 단체에 본당의 평신도 봉사자들까지 참여해 의정부평협이 출범했다.



▲ 의정부평협이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하는 김용무 회장. 평협 자체 행사를 치르는 데 힘쓰기보다는 교육,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의정부평협 창립총회 후 기념촬영. 의정부평협 봉사자들은 40~60대를 골고루 섞어 세대 간 경험을 전수하고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 이기현 주교(오른쪽)와 김용무 회장. 김 회장은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겸손한 봉사자가 되고자 한다.

과거에 우리 평신도들이 사제들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고 스스로 능동적이지 못하고 결정만 기다리는 자세였다면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고 교회 운영의 모든 결정을 사제들과 합의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평협은 사제단과 평신도 단체를 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에 대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교구는 내년에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사제 연수와 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도 여러 차례 교육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교님도 사목방향의 중심을 공동합의성에 두려고 하십니다. 그만큼 교구 사제들이 여기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정부교구는 교구와 본당의 삶에서 공동합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 교구 평신도들도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렇게 평협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교구장님의 이끄심과 도움도 크셨을 텐데요, 의정부교구의 역사와 교구장님 소개도 해주실까요?

의정부교구는 한국천주교회의 제16번째 교구로 2004년 6월 서울대교구에서 분가해 신설됐습니다. 가장 나중에 설립됐기 때문에 다른 교구에 비해 사제들이 젊고 평신도들과도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함께 소통하고 걷어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의정부교구가 젊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갖게 된 것은 초대 교구장 이한택(요셉) 주교님의 이끄심이 컸습니다. 이한택 주교님께서는 6년의 재임 기간에 ‘찾아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를 사목 모토로 삼아 신생 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은 모교구인 서울대교구 시절에 축적된 역량을 이어가면서도 쇄신과 체질 개선을 위한 성찰과 실천을 기울일 수 있었지요. 의정부교구는 이때 ‘민족화해’와 ‘이주사목’을 주력 사목분야로 정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10년 5월, 제2대 교구장으로 이기현(베드로)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착좌하셨습니다. 이기현 주교님은 ‘소공동체’를 교구의 비전으로 삼아 교회의 근본사명을 수행해 나가자고 선포하셨지요. 이 주교님이 오신 뒤로는 민족화해와 이주사목에 더하여 공동협력 사목, 직장경찰 사목, 사회복지법인, 수도회와의 연대 등 하느님 나라 구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행사 줄이고 연구, 교육, 양성에 집중

❖ 의정부교구는 소공동체와 이주사목,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의정부교구는 2014년 교구 설정 10주년을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해 1년 반에 걸쳐 시노드에 가까운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전 교구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신자들, 교구 내 모든 수도자, 전체 사제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교구 비전을 재확인하고 일부는 새로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 대립 때 발표된 교구

장 사목서한 ‘착한 목자’로 수렴되었지요. 이 서한에서 이기현 주교님은 교구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공동체, 청소년 사목, 사회사목의 활성화, 복음 선포를 향해 세상으로 달려 나가는 교회’를 사목 방향으로 정하셨습니다. 소공동체, 이주사목, 북한선교(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이 맥락에서 나온 실천 과제들입니다.

특히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교구의 지리적 여건, 주교님의 특별한 관심, 교구 사제들의 적극적인 태도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주사목과 그 연장에서 시작된 ‘난민 센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를 따르시려는 교구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공동체도 현 단계 교회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성이 크다고 보신 것이죠. 전체는 아닐지라도 모범적인 공동체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의정부교구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의정부평협 임원진과 봉사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의정부평협은 그동안 17개 사도직 단체 중심의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였다가 이번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정부평협은 기존 사도직단체와 함께 본당사목회장단, 여성총구역장 등을 망라하는 실질적인 신자 대표체가 됐지요. 임원진은 회장인 저를 비롯해 부회장단, 감사,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목회장님들이나 사도직 단체장님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기에 주로 전문가들을 스태프로 모셨습니다. 연령대도 40~60대를 골고루 섞어 세대 간 경험을 전수하고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평협 내 분과는 기획, 교육·연구, 여성, 홍보·대외협력, 사회 등 5개로 최소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사들을 줄이는 대신 연구, 교육,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분과 봉사자들도 이러한 일에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로 모시려 애썼습니다. 5개 분과 중에서도 무엇보다 여성분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분과는 본당과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기존 평단협을 평협으로 확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단협에서 봉사하시던 많은 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평협에 지금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통과 의견 나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의 부지런한 심부름꾼 될 터

❖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부평협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사업과 교육을 준비하시는지요?

올해 하반기는 기간이 짧아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벌여 나가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협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20일에 자체 연수를 겸한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30~40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기에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50~60대가 많은데 자연히 배턴을 이어 받으려면 30~40대 그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지요. 우리 의정부교구 뿐만 아니라 어느 교구나 다 겪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평협에서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당시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각 분과 봉사자들을 초빙하고, 평협 출범 때 나누었던 생각을 공유하고 내년 활동을 구상하는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의 중요한 사목방향이 될 공동합의성에 대한 공부, 교육,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정부평협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입니다. 겸손하고 능력 있는 실무진과 함께 평신도들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 회장님께서 의정부교구 ME(매리지 엔카운터) 활동도 하시고 본당 회장으로 7년 동안 봉사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봉사자로 일하는 기쁨도 크셨을 텐데요!

저는 교회 안에서 봉사와 활동을 구분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한테



▲ 평화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는 김용무 회장. 특별한 것 없는 봉사자를 맡았는데 교회 언론과 방송이 큰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기도 하고 부담이 된다고도 했다.

만 적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저 좋아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ME 활동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ME 활동을 하면서도 저희 부부가 얻는 기쁨이 더 컸으니 봉사라고 할 수 없겠지요. 본당(양주2동 본당) 사목회장이라는 자리는 본당 신자들의 심부름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내고 나니 제가 신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겸손했는지 의문입니다.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모여야

❖ 회장님께서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도 궁금합니다.

저는 15세 때 교리를 받았으나 도저히 세례를 받을 용기가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 20년 후인 1985년 35세에 한 번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회 입회를 준비하던 막내 여동생의 권유로 온 가족이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일 핑계로 금방 냉담을 하게 되었고 4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아내 미카엘라의 기도로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고 본당 사목회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40대를 넘어서야 진정한 신앙

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웠을 때 겪었던 일과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총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살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할 수가 없음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 평협 활동이 회장님께 주는 기쁨이나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평협 회장을 맡은 기쁨이나 보람보다는 제가 우리 의정부평협이 앞으로 공동합의성의 정신으로 기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구민들과 사제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서 이끌기보다는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고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 평협 활동과 관련해 회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지요.

교구마다 평협도 각각의 고유성과 전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모이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장점이자 고유한 가치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구 평협이 가는 방향에 맞게, 평협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일한다면 모두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평신도가 된다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윤대인 안드레아 / 회장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경영으로 얻은 이윤을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미·중, 한·일 무역 갈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속출하는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서 실천하며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 경제인은 많다. 이들을 아우르며 교회 사업에 협력을 아끼지 않는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의 윤대인(안드레아) 회장이 40여 년의 발자취를 들려주며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더 많은 교구가 참여해 교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솔한 바람을 피력하였다.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40년이나 되었습니다. 협의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과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요?

1979년 7월 25일 ‘한국가톨릭실업인회’로 창립되었으니 어느덧 40년이 지났네요. 그 후 단체 이름도 ‘한국가톨릭경제인회’로 바뀌었다가 2011년에 지금처럼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인 1970년대 후반 들어 가톨릭 신자 경제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내 행사 후원을 주관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발족하게 되었지요.

가톨릭 경제인이 기업 경영과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 교회가 지향하는 가톨릭 정신을 구현함과 아울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나누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또 일상생활과 신앙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안들을 탐구하여 신앙의 성숙을 돕고, 가톨릭 정신이 사업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당사제를 두고 회장과 부회장, 감사, 고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산하에 각 교구 가톨릭경제인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종교구를 뺀 15개 교구 중에서 9개 교구에 가톨릭경제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구·광주 대교구 세 곳과 인천, 의정부, 부산, 청주, 마산, 제주 교구에 있습니다(조직도 참조).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에서 평소에 수행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연초에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11월에는 전국 회원들을 위한 피정이 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는 2월 8일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열렸지요. 피정은 9개 교구를 순회하며 열리는데, 해당 교구에서 주관합니다. 피정 중에는 임원회의를 갖고 각 교구의 활동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대구대교구 한티 성지 피정의 집에서, 2018년에는 인천교구



에서 했지요.

부정기적이지만 『평화가 넘치는 샘물』이라는 회보도 매년 1~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활동으로는 각 교구의 가톨릭경제인회별로 신심, 나눔과 친교, 신앙 및 경영 세미나 개최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특별하거나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시다면?

2019년 6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위해 기념품 제작비를 후원한 것과 회장단 모임을 2회에 실시하여 친교와 유대를 강화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최근에 끝난 큰 행사나 조만간 치를 행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금년 3월과 9월에 각각 부산교구와 대구대교구에서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산하 각 교구 회장단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교구 ‘양산 영성의 집’에서 전국 회원 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17년 11월 3~4일 전국 회원 피정 기념(한티 성지 피정집)



▲ 2018년 1월 26~27일 정기총회 기념 및 총회 중의 임원회의



◀ 2018년 11월 16~17일 전국 회원 피정 기념 및 피정 중에 열린 임원회의



▲ 2019년 2월 8일 정기총회(파주 참화와 속죄의 성당)

❖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교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1981년 1월 15일 아시아 실업인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5년 10월 18일에는 독일 가톨릭 실업인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1998년 10월 8일에는 로마에서 열린 국제 실업인 대회에도 참가했어요. 2016년 5월 12~14일에는 로마 교황청 백주년 기념재단의 초대를 받아 회장단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는 현재 총 9개 교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교구별 특성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각 교구가톨릭경제인회가 견고한 나눔과 희생의 실천을 통해 교회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교구의 참여를 유도하고, 침체된 가톨릭경제인회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총회와 회원 피정을 통해 우수 활동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또 금년부터 실시 중인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회장단 모임의 정례화를 분기별로 추진 등 소통과 친교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임희영

글·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201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집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게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순교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순교자 임희영과 동료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여주 천주교 순교자 치명 기념비'. "여주 관아의 문에서 남쪽으로 1리쯤 떨어진 큰길가"라는 『벽위편』의 기록을 바탕으로 2009년에 세웠다(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48-7).

사학(邪學)을 준수하여,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고...

"사학을 준수하여,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遵守邪術 不立主 不設祭)." '하느님의 종' 임희영(任喜永, ?~1801)의 사형 선고문이다. 그는 1801년 음력 3월 13일(양력 4월 25일)에 여주에서 참수되었다. 이 선고문은 그가 순교한 신유박해(1801년)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학정의』에 남아 있다. 임희영의 세례명은 전해지지 않으나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대세를 받았다. 임희영은 여주군 금사면의 점들(현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에 살던 풍천 임씨 가문의 양반으로 본관은 황해도 풍천(豐川)이다.

임희영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모두 교리를 믿었으나 그는 도무지 성교 믿기를 거부했다. 아버지가 무섭게, 때로는 타이르듯 여러 차례 입교를 권했으나 대답을 피하며 "천주교를 신봉하기 위해서는 눈도 귀도 또 다른 어떤 감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러 해가 지나 병이 든 아버지는 병세가 심해졌고 죽을 때가 되어 아들을 불렀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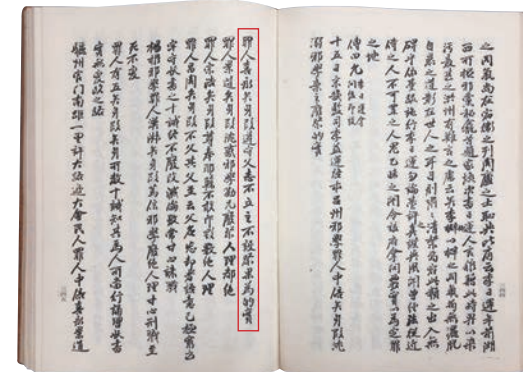


▲ 「여주목」, 『해동지도』, 18세기 중엽. 여주 관아와 관아 내에 있던 청심루의 모습이 보인다.

다면 아무 여한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는 또 그를 불렀다. "나는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너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보기에 내가 죽은 후에 너는 오히려 내 제사를 지내려 할 것 같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너는 내 말을 도대체 듣지 않았으니 내가 죽은 후에 상복도 입지 말거라. 만일 제사를 지내면 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선종하였다. 임희영은 상복을 입고 지극한 예를 모두 갖추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나 제사는 지내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그의 친척들과 지인들은 모두 수근거렸다.

마치 한 마리 순한 양처럼 혹독한 형벌을 받다

1800년 봄, 아버지의 첫 기일에도 제사를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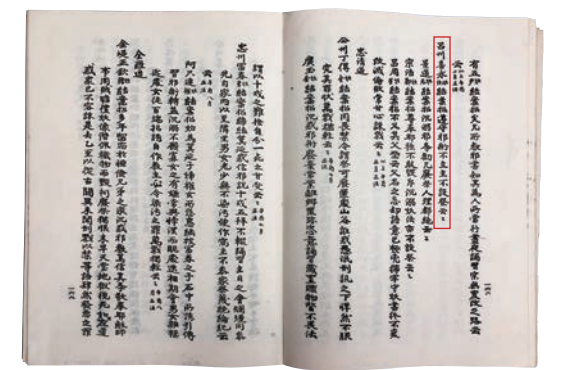


▲ 이기경(李基慶, 1756~1819)의 『벽위편(壁衛編)』

지 않자 임희영을 감시하고 있던 관장이 그를 잡아들였다. "분명 천주교를 신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하고 묻는 관장의 질문에 아버지 앞에 서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장은 "계속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천주교인처럼 죽이리라."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 임희영은 근 한 달에 두 차례씩 죄수들과 함께 신문을 당하였고,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마치 순한 양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의 한결같은 태도에 놀란 관장이 "내가 제사를 지낸다고 약속하고 재물을 바치면 풀어줄 것이나 계속 이대로이면 죽일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임희영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옥 안의 교우들이 오히려 "천주교인도 아니면서 왜 우리와 같은 형벌을 받느냐."고 답답해하며 "빨리 제사를 지낸다 하고 목숨을 부지하라."고 재촉하였다. 그제서야 임희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말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임을 재차 말하였다. 그의 단호한 뜻을 알고 난 교우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천주를 섬기고 공경하자."고 설득했다. 마침내 임희영은 기도문을 배우고 주일과 축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 『사학정의(邪學懲義)』, 저자는 미상이나 저작 시기는 신유박해 직후로 보고 있다.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록들

다블뤼 주교는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조선 순교자 비망기』에 순교자 임희영의 마지막을 소상하게 적었다.

“1801년 봄, 그는 4명의 교우와 함께 감사 앞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증거했고 거기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처럼 결안에 서명을 한 임희영은 여주로 옮겨졌다. 1801년 3월 13일 함께 참수되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그가 옥 안에서 교우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믿어진다. 이 약전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기다려야 한다. 처음에 우리는 순교자 명단에서 임희영을 뺀 생각이었으나 마지막에 그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감사 앞에서 신앙을 증거했다고 사람들이 보증하니 그렇다면 그는 순교자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의혹이 있다면 뺄 것.”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한 비신자 임희영은 진지하게 수계(守戒)를 계속하여 감사의 법정에서 자신이 교우임을 밝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 그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였다고 밝혔음이 확실하다. 또한 우리는 임희영이 감옥에서 대세를 받았다고 믿는다. 여주로 돌아온 이 증거자들은 그들의 고통의 결말과 항구심에 대한 보상을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음력 3월 13일 5명 모두 여주성 밖에서 참수되었다. 최 마르첼리노는 53세, 원 요한은 28세 혹은 29세, 이 마르티노와 정종호는 약 50세, 임희영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회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순조실록』과 『벽위편』에도 임희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순교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경기 감사 이익운(李益運)이 도내의 사학 죄인(邪學罪人)으로 여주(驪州)에서 11인, 양근(楊根)에서 7인을 취초(取招)하고 사문(査問)한 후에 율(律)에 의거하여 감단(勘斷)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이에 이중배(李中培)·임희영(任喜永)·유한숙(兪汗淑)은 신주(神主)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여 사람의 윤리를 폐절(廢絶)하고 형록(刑戮)도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긴 것으로 결안(結案)을 받아 부대시참(不待時斬)하도록 명하였다.”

“죄인은 부친의 뜻을 받들어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주 관아의 문에서 남쪽으로 1리쯤 떨어진 큰길가에서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죄인 중배, 희영, 경도, 종호, 창주 등을 법률에 따라 참수하였습니다.”

순교자 임희영은 모든 의혹을 떨쳐 내고 2011년 2월 시복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가 되어 우리 신앙의 후손 앞에 하느님의 종으로 우뚝 섰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사도 17,28).”

나의 신앙 선조

밀알 하나가 이뤄낸 기적



류하나 스콜라스티카 / 서울대교구 방이동 본당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집에 들어서며 마주치는 광경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동그란 어깨, 모아진 두 손에는 묵주, 예수님과 성모님 앞의 어머니는 눈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는 이내 기도로 돌아가십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는 종종 외할머니가 겹쳐집니다.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외할머니,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외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믿으셨다는 천주교가 저희 가정의 종교입니다.

열렬한 신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어머니께서는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희망하셨고, 어머니께 반하셨던 아버지는 다행히 대학 시절 세례를 받으신 분이래 결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안의 유일한 신자였고 줄곧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모시게 된 시부모님은 천주교에 호의적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오랜 기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도 종교에 대한 친척들의 냉대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머니가 직면하셨을 상황은 더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도를 줄곧 하시는 모습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서운한 일이라도 있는 날에는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기도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 어린 시절 성당에서 엄마와 세 자매



▲ 어린 시절 막넛동생 리나의 첫영성체



▲ 어린 시절 첫영성체 후 동생들과 함께



▲ 성 베드로 성전 성지순례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터라 성당에서 장례를 모셨는데 성당 식구들의 연도, 신부님들의 미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감화되신 큰고모께서 성당에 가보고 싶으시다는 연락에 저희 가족은 모두 놀랐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지, 직접 봤는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묻곤 하던 사촌

오빠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단순히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인정하시던 분이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몇 년 뒤, 큰아버지의 장례식에 조심스럽게 천주교식 예식을 권하는 어머니께 화를 내셨던 큰어머니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어머니의 삶이 기쁨으로 물드는 것을 본 사촌 오빠들도 놀라워하며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성당 소리 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어떻게 그 마음들이 바뀐 걸까요?

기존에 알아왔던 모습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전 성호를 긋고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눈치가 보이던 명절의 식탁, 미묘하게 감도는 낯선 공기,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 하느님이나 성당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들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와서야 그 모두가 ‘하느님을 정말 몰라서’ 생긴 일이었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하느님께 가지 못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만큼은 헛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를 가하지도, 폐를 끼치지도 않는 나의 종교를 가지고 타박을 하니 야속하게만 느껴져, “차라리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 조른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어느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갔나 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토록 놀랍게 이뤄 나가시는 것을 보니 말이지요.

지나고 보니 어머니는 하느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제 몸을 잘 썩혀 싹을 틔우셨구나.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며 걸어오신 덕에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씩 하느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도 언젠가 주님의 좋은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꾸준히 기도하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밀알 한 알씩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순간 화살기도를 바칩니다. 그 어떤 기도도 하느님께서서는 절대로 땅에 떨어뜨려버리지 않으시니까. 

탐방

천주교 서울 순례길 2코스 - ‘생명의 길’을 걷다



김영숙 리더아 / 한국평협 순교자현양위원장

‘말씀의 길’에 이어서, 7월 13일에 2코스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가회동 성당에 모였다.

한여름의 해를 조금이나마 피해 보려고 아침 시간에 시작했다. 평협 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 단체에서도 함께하여 참석하신 분들이 60명이 넘었다.

1코스 ‘말씀의 길’을 걸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이 어땠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어쩌면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걸었을 ‘생명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순례길 가운데 가장 짧은 길이지만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간으로 임금의 명령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졌던 박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5.9km의 길을 걸어간다.



▲ 서소문 순교성지에서



◀ 서울 순례길 2를 걷는 순례객들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이 땅에 들어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첫 미사를 봉헌하였던 장소인 '가회동성당'에서 시작기도를 함께하고 출발하여 '광화문 시복 터'로 향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여 집전하신 미사에서 124위 복자들의 이름이 불리어졌던 광화문 광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라가 금하는 천주학을 버리지 못해 죽음으로 답했지만,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불리어진 시간을 기억하기 위하여 경복궁의 정문 앞 시복 터에 바닥돌을 설치하고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이곳을 지나시는 이들과 그분들을 기억할 것이다.

궁궐 앞으로 늘어서 있는 육조 거리를 가다보면 우리 순교자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형조 터'와 만난다. 육조 중 하나로 추조라고도 불렀고 법률, 소송, 형벌 등을 관할하며 조선시대 사법기관의 한 축을 이루었던 곳이다.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형조로 끌려간 분들 가운데 많은 매를 맞고 귀양 간, 명례방 신앙 공동체의 집주인 김범우 토마스를 시작으로 박해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곳이다.

다음으로 가는 곳은 '한국천주교 순교 터이자 신앙증거 터'인 '의금부 터'다. 왕권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왕명을 받들어, 왕권을 부정하고 유교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죄인을 추국하는 최고사법기관이었다.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던 천주교인들도 이곳으로 끌려와 문초와 형벌에도 신앙을 증거하였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장소다.

이제 길을 건너 가까운 곳에 역시 순교 터이자 신앙증거 터인 '전옥서 터'로 간다. 조선시대, 형조의 지휘를 받아 죄수를 관장하는 곳으로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형조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고,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수감되어 굶주림과 기갈 등을 겪으면서도 고난을 참아내며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한 곳이다.

다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포도청 터'로 간다. 포청이라고도 불리며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도를 관할하고 왕권보호우선의 한성부 치안담당의 역할을 하였다.

포도청에서 신자들을 심문할 때는 형조보다도 더 심한 매질을 해서 심문 과정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수형이나 백지사형이 시행되었고, 서울의 마지막 순교 터로서 좌포도청과 함께

박해시기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한 곳이다. 성인 22분과 복자 5분이 포도청에서 순교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시청광장을 지나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고, 시대의 변환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함께 겪은 정동길을 걷고, 격동기 조선의 역사를 되새겨보며 '경기감영 터'를 향해 걷는다.

경기관찰사는 일반 행정과 군정, 사법, 경찰 등 정사를 보는 관아로, 오늘날의 경기도청이다.

한국천주교회 창립 이후, 확산된 경기도지역 신앙공동체는 신유박해로 신자들이 체포되어 경기감영에서 형벌과 문초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양근의 조용삼은 예비신자로 잡혀와 경기감영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하고 모진 형벌에도 배교하지 않고 옥중에서 순교하여 광화문에서 복자품에 오르셨기에 감동을 더한다.

다시 한양의 처형지였던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를 향해 간다. 조선시대 수도 '한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이 있었다. 서소문은 남대문 밖에서 칠패시장으로 통하는 길에 위치한 소문으로 의금부와 포도청이 가깝고 시장이 있었던 서소문밖 네거리는 조선의 공식 사형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서소문밖 네거리에서 처형되어 이름이 밝혀진 신 분은 100여 분이며, 44명의 성인과 27위 복자가 탄생한 우리나라 최대 평신도 순교성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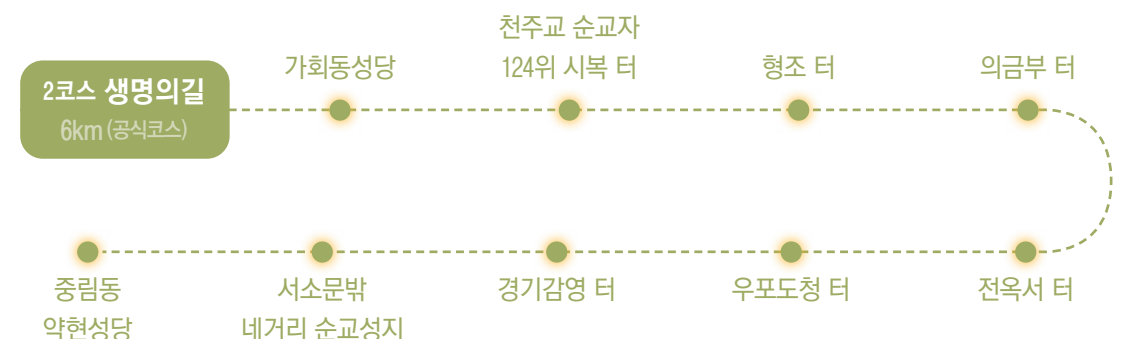
현양탑만이 공원의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지

만, 서울대교구는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버려진 땅으로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난 6월 1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자리 잡아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지상의 현양탑에서 시작하여 지하 3층까지 이어지는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많은 볼거리와 교육의 장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이제 오늘 순례길의 마지막 도착지인 '중림동 약현성당'이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 이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신자가 증가해 서소문밖 수레골에 설립한 문밖 공소는 경기도에서 황해도까지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다. 공소의 신자수가 많아 지자 1891년 명동본당에서 분리 설정된 서울의 두 번째 본당으로 1892년에 서소문 순교성지가 내려다보이는 약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벽돌식 성전이 지어졌다. 4년 후,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약현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양식이 절충된 국가 사적 제252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이며 100주년이 되었을 때 순례기념성당과 순교자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순교 관련 역사와 교회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짧은 구간이지만 주님을 위한 죽음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 가신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생명의 길로 향하는 기쁜 순례의 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생명의 길' 코스를 마무리한다.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완주기

- 보물지도



전진신 엘리사벳 / 대전 도룡동성당



▲ 성지순례 지도

아무 일 없는 듯, 웃어도... 보이는 게 있는가 봅니다.

어느 날 미사 후 수녀님께서 조용히 염려해 주시던 말씀 “뭘 일 있냐요?” 들켜버린 마음 부끄러워 한참을 텅 빈 성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살아내는 일에... 건조한 매일의 시간은 여름날 햇볕에 바짝 녹아내린 상춧잎 같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움 없어... 잡은 끈을 기도라 믿고 좇들 켜 보아도 오히려 온갖 생각들이 아우성치며 숨어있던 한숨들을 들추어내고, 알 수 없는 막막함에 허둥대며 지내던 날에 『한국천주교 성지순례』라는 책이 있음을 듣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감사’라는 보석을 찾아보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본당(도룡동성당) 새벽미사에 주님께 성지순례 시작인사 드리고, 첫 번째 순례지를 솔피성지로 시작했습니다.(2015. 7. 26.) 한국 최초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지. 솔피성지! 사제서품 후 선교사 영입을 위해 백령도 부근에 있는 순위도에 가셨다가 포졸에게 체포되시어 한

강 새남터에서 25세 나이에 순교! 솔피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박해 받으며 4대를 걸쳐 순교하신 곳이라 합니다. 단채피정으로 여러 번 왔던 솔피성지이지만 조용히 혼자 시작한 순례시간은 성지 곳곳의 모든 것들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에 마음을 쏟으신 선조들의 순교 기운이 울컥 울컥 가슴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짙은 소나무향 가득한 성지의 십자가 기도길에서 심호흡 크게 하니 여름을 부르는 7월 뜨거운 바람마저도 고맙기에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보물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지마다 묵상된 생각을 적어놓고 지도 펴 놓고 나름의 성지순례길 만들어(2015년 순례책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미사 후 (본당에 새벽미사가 없을 때에는 매일 새벽미사가 있는 대사동성당에서 미사! 봉헌) 간단한 도시락 챙겨들고 어릴 때 소풍에서 보물찾기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성지순례 시간을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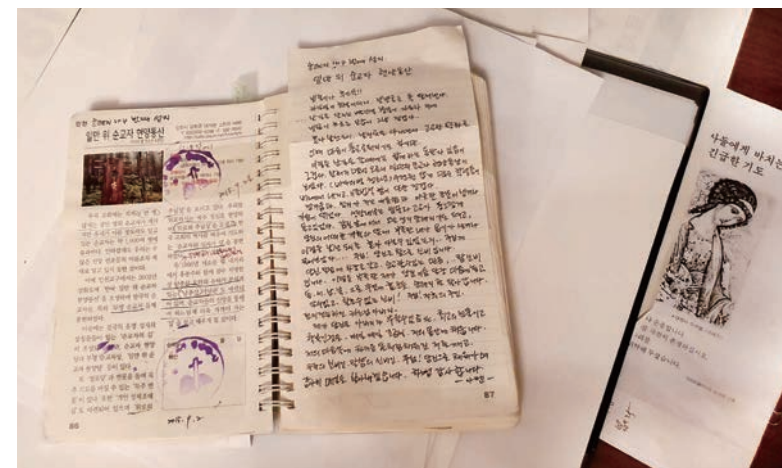
무엇에 홀린 듯...

새털같이 몸이 붕 떠져서 성지를 다녀온 것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낯선 길을 혼자 떠나는 두려

움도 많았습니다. 문경새재를 굽이굽이 돌아 찾은 여우목성지. 원주교구의 풍수원성당 순례 후 도착한 여우목성지의 하늘빛은 늦은 오후를 준비하고, 산길 좁은 길 따라 험한 돌길 아래 잡초 무성한 수풀 뒤에 진짜 여우가 숨어 있을 듯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엄마, 아버지... 제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부르며 신발 벗어 들고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혼자 느끼는 성지순례에 얻어지는 풍요만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에는 ‘득’과 ‘실’이 함께한다는 것이 맞나 봅니다. 지금은 여우목성지의 좁은 산길이 기도하기 좋은 산책길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성지에 계신 순교자들의 묘지를 8월의 파란 하늘과 짙은 녹색 나무들이 품어 주는 듯합니다. 다시 찾아가는 여우목성지 순례시간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십자가 기도길 끝에서 순교자 찬가도 크게 불렀습니다.

교만이 슬며시 마음에서 스멀거릴 땐 저는 성지를 찾습니다. 성지순례하며 기억에 남았던 곳을 다시 다녀보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도 빠걱거리는 낡은 바닥 소리에 순교자의 믿음과 고통이 느껴지는 금광리 공소.



▲ 성지순례 묵상글



▲ 성지순례 책



▲ 황새바위성지 무덤경당에서 만난 빛의 신비



▲ 솔밭성지 십자가의 길 11차(예수님께서 못 박 하심을 묵상하며...)



▲ 황새바위성지 부활경당에서 기도하는 꼬마 아가씨

폭염으로 폭폭 찌는 8월 뜨거운 햇볕을 겁정 우산으로 가리고 계셨던 신부님들의 뒷모습에서 일상의 순교를 느꼈던 은이성지. 신부님께서는 “모두들 바다 산으로 피서를 갔는데 어찌 왔나요?” 웃으시며 풀이 무성한 성지 마당 가운데 있는 나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최초 서양인 선교사 모방 베드로 신부님께 세례 받았던 장소라고 알려주셨고 은이성지에 김가항 성당 원형복원 공사를 위한 성전 기공식도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참석 못 했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옥으로 지어진 김대건 신부님 기념관과 신부님께서 사제서품 받으신 중국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을 복원한 은이성지의 성당에서 처음(2015년) 순례 때와는 다른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현 라파엘 신부님, 이창준 로사리오 신부님께 미사 후 안수 받은 성령 기운을 김대건 신부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세례 터 나무 아래 앉아 감사의 보물들을 차근차근 마음에 담

아 두었습니다.

성지순례 시간을 갖다보면 고요히 마음 안에 담아 두어야 하는 체험과 느낌들이 곳곳의 성지마다 달랐습니다. 해외 성지순례 때와는 다른 아련한 아픔이 느껴 왔습니다. 8월의 피서철 성지는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고요한 성당에 앉아 있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여름날 소나기 내리듯 후드득 후드득 생각에서 내려져 그냥 마음속이 맵습니다.



▲ 성지순례 흔적

성지순례를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순교자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당연한 듯 무심히 성호경을 그렸던 나의 기도들이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창피하고 게을리하려고 하면 황새바위 순교성지를 자주 찾아가합니다. 교만을 누

르고 겸손의 교훈을 주는 좁은 바위문을 지나면 배교를 거절하고 목에 커다란 항쇄를 쓴 채 처참하게 처형당했다는 순교자의 피가 느껴지는 순교탑이 있는 황새바위성지. 이름 밝혀진 순교자는 337명. 무명의 순교자는 무수히 많다는 순교성지입니다. 성지를 갈 때마다 받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어느 성지에서나 기도길에서는 많은 감사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새바위 순교성지의 무덤경당에서는 빛의 신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에 피 흘리며 배교를 이겨낸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의 혼이 담겨있는 것 같은 4천여 점의 백자도자기를 평판화가 있는 부활경당.

성지순례를 하시는 교우들이 무심히 들어갔다가 무언지 모를 에너지를 느꼈다 합니다. 1,250도의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구워져 나온 백자도자기 평판화는 순례자의 기도 마음을 모으는 듯합니다. 일곱 살 손녀 엘리사벳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활경당 입구에 알림글이 자세하게 있는데 어느 순례자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했지만 다시 바르게 정리된 것이 그래도 성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모두는 조심스레 정보를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111곳. 어느 곳 하나하나 애달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례를 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훈련되는 피정시간이었습니다. 좁고 얇은 굴속에 모여 신앙의 박해를 피했다는 죽림굴성지! 골짜기 골짜기의 깊고 깊

은 산속에서 숨어 지냈을 텐데... 아마도 누군가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얻는 대가로 밀고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배낭 속 도시락을 먹는 것도 망설였던 순례시간이었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낯고 반들거려진 신발. 뒷굽이 떨어져 용감하게 벗어 들을 수 있었던 마음이 신앙의 자유와 미사와 성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께서 고귀한 순교선혈로 지켜내신 신앙에 감사합니다. 턱밑으로 성의 없이 굶던 성호경! 이제 크게 크게 어깨 높이로 합니다.

갓가지 고문 방법에 살이 찢기어 떨어져도 주님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순교자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바늘 놓치지 않으려 매일 감사의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지는 지나다가 둘러보는 관광지가 아닌 순교자의 숭고한 신앙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한 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예레 31,3)

주님 저희는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은이성지 성당에서 예수회 신부님들과

성지순례에 받았던 감사의 선물들을 갖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성지순례를 다시 시작하려 책장에서 성지순례 지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성지에서 만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마음속 단맛이 일어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167곳 안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2019년 6월 30일에 주교회의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에서 저술한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개정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이 도서는 여러 교구의 요청에 따라 각 교구 성지 담당 사제들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기존 15개 교구(군종교구 제외) 111곳이었던 성지 중 59곳을 추가하고 3곳을 삭제하여 167곳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을 다시 성지, 순교 사적지, 순례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각 교구별로 구분하여 명칭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앞의 필자가 완주한 경험을 읽고 평신도들이 국내 성지순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련 정보는 다음 카페의 성지순례후원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교구	순교자 기념 성당, 영광 순교자 기념 성당	골 성지, 해미 순교 성지, 홍주 순교 성지, 황새바위 성지
성지	명동대성당, 광희문 성지, 노고산 성지, 당고개 순교 성지, 삼성산 성지, 새남터 순교 성지, 서소문 순교 성지, 왜고개 성지	사적지
사적지	경기감영 터, 김범우의 집터, 우포도청 터, 익금부 터, 이벽의 집터(수표교), 전옥서 터, 절두산 순교성지, 좌포도청 터, 형조 터	순례지
순례지	가톨릭대학교 성신 교정, 가회동 성당, 용산 성직자 묘지, 옛 용산신학교 성당, 종로 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한국 순교자 시복 터, 한국 순교자 시성 터	대구대교구
광주대교구	성지	성지
사적지	가톨릭 목포 성지, 곡성 옥 터, 나주	성지
	갈매못 성지, 공세리 성지, 대흥 봉수산 성지, 성거산 성지, 청양 다락	성지
		성지

부산교구	성지
성지	김범우 성지(동굴 성당), 수영 장대골 순교 성지, 오륜대 순교자 성지,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성당
사적지	조씨 형제 순교자 묘, 죽림굴(대재공소)
순례지	샬티 공소(김영제, 아가타 묘), 연양 성당
수원교구	성지
성지	구산 성지, 남양 성모 성지, 남한산성 성지, 단내 성가정 성지, 미리내 성지, 수리산 성지, 수원 성지, 양근 성지, 어농 성지, 죽산 성지, 요당리 성지, 천진암 성지
사적지	손골 성지, 은이 · 골배마실 성지
안동교구	성지
성지	마원 성지
사적지	여우목 성지, 진안 성지(최양업 신부 선종지)
순례지	농은 홍유한 고택지, 우곡 성지
원주교구	성지
성지	배론 성지

사적지	강원 감영, 묘재(성 남종삼, 남상교 유택지), 성내동 성당, 풍수원 성당
순례지	대안리 공소, 용소막 성당, 원동 주교좌 성당
의정부교구	사적지
사적지	갈곡리 성당(공소), 남종삼 요한 성인 묘, 마재 성지, 신암리 성당, 양주 순교 성지, 참회와 속죄의 성당, 황사영 알렉시오 묘
순례지	주교좌 성당 내 사적지, 행주 성당
인천교구	성지
성지	갑곶 순교 성지, 제물진두 순교 성지, 진무영 순교 성지
사적지	이승훈 베드로 묘
순례지	답동 주교좌 성당, 성모 순례지(성모당), 성체 순례 성지, 일만위 순교자 현양 동산
전주교구	성지
성지	여산 하늘의 문 성당, 전동 순교 성지, 천호 성지, 치명자산 성지
사적지	고창 개갑장터(최여겸), 김제 순교 성지, 나바위 성지, 서천교, 초록바

위, 전주 숲정이 성지, 전주 옥 터, 초남이 성지	제주교구
사적지	김기량 순교 현양비, 용수 성지(성 김대건 표착지)
순례지	관덕정, 대정 성지(정난주 묘소), 새미 은총의 동산, 황경한 묘소, 황사평 성지
청주교구	성지
성지	배티 순교 성지, 서운동 순교 성지, 연풍 순교 성지
사적지	멍에목 성지
순례지	감곡 매괴 성모 순례지
춘천교구	성지
성지	죽림동 순교 성지
사적지	광암 이벽 진묘터와 생가터, 묵호성당, 소양로 성당, 순교자 라 파트리치오 순교터, 양양 성지, 포천 순교 성지
순례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 갯세마니 피정의 집, 곰실 공소, 금광리 공소, 임당동 성당, 춘천교구 주교관과 교육원, 행정 공소, 홍천 성당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성 김대건과 최양업 신부 활동 경로
(중국 동북지역 편) - 제2부

김창환 바르톨로메오 / 서울대교구 청구본당

지난 호에는 중국 접경지대부터 서만자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만리장성에서 요동반도를 거쳐 요녕성, 길림성에 걸치는 경로를 두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만리장성

브뤼기에르 주교의 설명대로 서만자 성당을 지나 장가구(張家口)를 거쳐 북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만리장성이다. 이곳은 몽골족이 쳐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북경의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다. 브뤼기에르 주교는 “평야 지대 그리고 산맥들 사이의 협곡들에서 이 성벽은 높이가 10~12m로서 방어용 요철을 갖춘 큰 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산맥 위로 올라가면 이 성벽의 높이는 3m 정도 됐다. 산맥 위의 성벽은 각 면 보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은 언덕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인접해 있는 구릉에 지나지 않는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성벽은 중국과 달단을 물리적으로 갈라놓고 있다. 따라서 남쪽에 있는 산비탈은 중국에 속하며, 북쪽의 것은 달단에 속한다. 나는 장가구라고 부르는 문으로 이 성벽을 통과했다. 러시아인들이 북경으로 갈 때 바로 이곳을 통과한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내가 고용했던 사람들은 아마 나와 내 뒤에 올 사람들이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모르는 척했다. 만약 감시가 엄격했다면 산맥을 넘거나 아니면 세월이 흐

르면서 생긴 좁은 길을 통해 만리장성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에서)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의 마카오 유학길 코스인 의주에서 북경까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마카오로 건너간 두 신학생은 아편전쟁 도중 필리핀 롤롬보이로 피신하여 잠시 머문다. 다시 소팔가자(小八家子)로 이동하여 신학수업을 계속하며 부제품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행적은 중국 요동반도 남단 지역과 관련이 있다.

요동반도 남단 태장하(太莊河)

1841년 11월 철학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 과정에 입문한 김대건과 최양업 신학생은 1842년 2월 15일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마카오를 출발하여 상해를 거쳐 남경조약 체결 현장까지 참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842년 10월 22일 요동(遼東) 반도의 남단인 태장하 해안에 도착한다. 10월 25일 백가점(白家店, 현 요녕성 장하시 용화산진 차쿠성당 인근) 교우촌의 두 요셉 회장 집에서 유숙하였다. 백가점은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거점이 된 차쿠 이웃에 있던 교우촌이다. 최양업은 11월 3일 매스트



차쿠성당



대형초상화를 설치한 차쿠성당 제대

르 신부, 김대건 등과 헤어진 후 만주 선교사 드 브뤼니에르(de Bruniere) 신부와 함께 요동반도 북단에 있는 개주(蓋州) 부근의 양관(陽關) 교우촌을 거쳐 페레올 주교가 있는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김대건은 백가점에 머물면서 매스트르 신부에게 신학을 계속 배우며 조선으로 입국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기해박해로 선교사들과 신자들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매스트르 신부와 김대건은 조선 입국을 시도하려 했으나 연락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주 대목구장이었던 베를 주교조차도 무모하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대건이 조선 변문으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1842년 12월 23일 김대건은 중국 쪽 국경인 봉황성 변문을 출발하여 4일 후 의주 변문 부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대건은 청나라로 가는 사신 일행에 끼어 있던 밀사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조선교회 사정을 자세히 들었는데 자신을 신학교에 보낸 모방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이 모두 순교했고, 동료 최양업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도 순교했으며 어머니는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매스트르 신부의 입국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이 직접 조선에 입국하는 모험을 시도해 보았으나 도저히 불가능하

다고 판단하고 백가점으로 돌아왔다. 1843년 2월 하순 김대건은 제3대 조선교구장인 페레올 주교가 거쳐하던 만주 소팔가자 교우촌으로 옮겨 최양업과 함께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요동반도 남단 차쿠(백가점, 용화산)

요동반도 남쪽 장하 시에서 북쪽 70리 거리에 위치한 차쿠는 한국 천주교회의 중국 요동 지역 사적지이다. 차쿠는 마을 이름으로 지금은 용화산이라 부르고 있다. 베를 주교는 아름답고 높은 침탑을 가진 차쿠 성당을 건립하였다. 주보를 로마에 있는 ‘눈의 성모 성당’(聖母雪之殿)과 동일한 이름으로 정하였는데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사방이 눈으로 덮이면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천산산맥의 끝 부분에 속해 있는 높은 산들을 넘어야 한다. 위치에 대해 조선 선교사들은 “성모설지전 성당은 북쪽으로 영광의 산, 남쪽으로 작은 시내에서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계관산(鷄冠山)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70년 리텔 주교가 차쿠에 신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현재의 위치는 옛 성당 자리가 아니다. 이곳은 요동지역에서도 조선과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중요한 사목 거점이 되었으며, 베르뇌 신부와 최양업 신부도 첫 사목지인 이곳에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었다. 차쿠 성당(지금의 용화산 성당)은 1867년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박해로 입국하지 못한 채 이 성당에 거주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파리외방전교회의 리샤르, 마르티노 그리고 훗날 제7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는 블랑 신부는 1866년의 병인박해 때문에 조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 차쿠에서 생활하였다. 이어 조선을 탈출한 칼래 신부와 리텔 신부도 이곳에 머무르며 재입국을 모색하였다. 1869년 베롤(E. J. F. Verolles, 方) 주교에게 요동 사목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리텔 신부는 조선 교회의 장상으로서, 또 1870년 이후에는 교구장으로서 모든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우선 그는 조선교구의 대표부를 차쿠에 두고 그 안에 조선 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리샤르 신부를 차쿠 본당의 주임으로 임명하여 대표부 일과 경리를 맡아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1876년부터 하나 둘씩 선교사들을 조선에 입국시키기 시작하였다.

개주시 나가점, 양관

양관은 현재 요녕성의 개주시 남동쪽 40~50리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나가점'(羅家店)이라고 불리는 가구 수 50여 호의 한적한 농촌이다. 파리의방전교회 회원으로 만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에 임명된 베롤 주교는 1840년 양관에 부임하여 아름다운 주교좌 성당(본당 주보는 '성 후베르트')을 건립하였는데, 당시 이 지역의 신자 수는 180명이었다. 이때부터 양관 성당은 만주 남쪽의 전교 중심지가 되었다. 1842년 10월 김대건과 최양업, 매스트르 신부와 만주 선교사 브뤼기에르 신부 일행이 요동 땅에 상륙한 뒤 백가점 교우촌에 머물다가 하나둘씩 '양관'을 거쳐 만주 북쪽의 소팔가자로 올라갔다. 1843년 12월 31일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이 이곳에서 있었으며, 최양업, 김대건 신학생이나 조선 선교사들은 만주를 여행할 때 자주 이곳에 들렀다.

제4대 조선교구장 베르뇌 신부도 만주 선교사로 있을 당시 이 성당에 거처하면서 사목하였고, 최양업 신부는 1849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요동으로 건너와 7개월 동안 베르뇌 신부의 보좌 신부로 양관에서 첫 사목을 시작하였다. “저는 5월에 함선을 타고 상해를 떠나 다시 요동으로 왔습니다.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만주 대목구장 직무 대행 맡고 있는 베르뇌 신부님의 명에 따라 병자들을 방문하고, 주일과 축일에는 신자들에게 짧은 강론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큰 축일에는 고해성사를 주며 성체를 배령해 주는 일에 정성을 다 바칩니다.”(최양업 신부의 1850년 10월 1일자 서한)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1869년 조선 선교사들이 베롤 주교에게 요동 일부의 사목 재치권을 이관받게 되면서 양관 지역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지금 양관 성당의 옛 터는 마을 뒤편에 있으며,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6칸)과 옛 성당의 주황색 벽돌담만이 남아 있다. 베롤 주교가 지은 처음의 성당은 문화 혁명(1966~1976년) 때 홍위병들에게 파괴되었다고 한다. 현 성당은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 오른쪽 첫째 칸에 마련되어 있다. 성당이라기보다 시골 공소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평소에 문이 잠겨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며 우리 한국 신앙 선조들이 떠올라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소팔가자

길림성(吉林省) 장춘시(長春市)에서 약 30km 거리에 있는 소팔가자 마을로 가는 도중 성당 약 10km 이전 지점에 '김대건로(金大建路)'라는 표지석이 있다. 소팔가자 성당을 찾는 신자들에게 순례길의 의미를 더하자는 서울대교구 신자들의 정성으로 1999년에 완공되었다. 중국 당국은 도로 등에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는 특별히 허락하였고 정부 측에서도 도로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김대건로의 완공은 한국과 중국 천주교 상호교류의 시작점이 되었다.



◀ 소팔가자 성당 가는 길의 김대건로

었다. 1796년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소팔가자는 1838년 요동대목구가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되면서 파리외방전교회가 사목을 담당했다. 만주교구 초대 교구장에 임명된 베롤 주교가 1841년 소팔가자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당을 건립하였다. 성당 뒤편에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이 있다. 성역화 추진위가 지난 1998년 건립한 고(故) 김세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의 작품이다. 김대건 신부의 동상은 갓과 두루마기 차림으로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앞을 향하고 있으며 방향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상 뒤편 김대건 신부가 거처했던 장소에 5층짜리 피정(순례자)의 집이 있다.

소팔가자는 장춘 서북쪽 사평(四平) 인근에 있던 교우촌이다. 1843년 1월 6일 김대건은 1843년 3월 백가점에서 소팔가자로 거처를 이전하였다. 1843년 초 페레올 주교가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칙서를 받아 제3대 조선 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그해 12월 31일 개주의 양관에서 만주 대목구

장 베롤 주교 집전으로 제3대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이 거행되었다. 1844년 1월 14일 최양업은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소팔가자로 귀환하여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1월 말 페레올 주교도 소팔가자로 귀환하였다. 4월에 조선의 동북쪽 입국에 실패한 김대건도 훈춘(琿春)에서 소팔가자로 귀환하여 4~12월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삭발례로부터 제 1~5품까지 받고, 김대건과 최양업은 이곳에서 함께 부제로 서품되었다. 1845년 상해로 건너간 김대건은 8월 17일 상해 김가항(金家港)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고, 10월 12일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신부와 함께 충청도 황산포 나바위를 거쳐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다. 반면 최양업 부제는 1846년 1월 말 매스트르 신부와 함께 조선 입국을 위한 두 번째 탐색 여행을 위해 훈춘으로 갔다.

마치며

김대건, 최양업 두 사제의 발자취를 중국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소개하였다. 제2부는 요동반도 남부 쪽에서부터 북경에 이르는 한국 천주교 관련 성지·사적지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볼롬보이, 마카오를 거쳐 사제 서품 장소인 상해, 제주 표착지, 이후 활동 경로 등 살펴볼 곳이 다수 존재한다. 순례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보살펴주신 하느님께 찬미, 감사와 흠숭을 드리며 글을 마친다. ❷



소팔가자 성당



소팔가자 성당 김대건 경당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불멸의 성지

- 예루살렘



김원창 미카엘 / 평화방송여행사



▲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 황금돔 모스크

언덕 위에 놓인 자그마하고 먼지투성이 도시 예루살렘!

이름만으로도 고귀함을 느끼게 되는 그 도시의 첫인상은 그리 평화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곳 예루살렘은 끔찍하고 참담하도록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의 현장이며, 신앙심 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시에 파괴와 불신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스치는 곳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가득해서 절로 기도가 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도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고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르려는 순례자들의 기대는 금방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은 유다 사막으로 이어지는데, 이 사막은 메마르고 바랜 열은 갈색의 황무지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수면이 가장 낮으며 가장 소금기가 많은 사해(死海)까지 이어집니다. 1600여 년 전에 이곳을 지나던 예로니모 성인은 소금기 때문에 단 한 마리의 생물체도 살지 않고 그 넓은 수면 위에 새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죽음의 바다(Dead Sea)'라고 불렀으며 그 이름이 여전히 유효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은 7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기 찬 바람을 막아주듯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들어선 언덕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 전승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은 광야와 사막의 경계를 이루는 도시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가 포함됩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은 예루살렘보다 높은 언덕을 넘어 사마리아 지방을



▲ 예수님의 무덤

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분열된 북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을 변질시켰던 그 오욕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구세주의 피땀이 적혀진 올리브 산, 주님의 계율이 펼쳐야 할 시온 산,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려던 모리아 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단죄하고 채찍질하며 그분의 마지막 밤을 심연의 구렁이에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게 만든 '십자가의 길(via Dolorosa)'과 골고타 언덕. 이 모두가 예루살렘을 이루는 장소들입니다. 척박해 보이는 언덕들, 그 석회암의 바위 위에 희생을 위해 뿌려진 피가 넘칠 때 이 도시가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 율법학자와 이슬람 이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은 기본적으로 성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스스로 그 고통에 참여하고자 세상 곳곳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사실 세상의 악(惡)에 무관심한 것은 악 그 자체보다 더 사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관심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양심은 조잡해지며 영혼을 차갑게



▲ 무덤성당

만듭니다. “무관심은 사실 천사의 눈에 눈물을 맺게 만든 특별한 특징”이라는 옛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이 하나로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나 혼자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 혹은 나와 관련된 몇몇만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살아 왔으며 그로 인해 작은 세상의 행복을 가졌다고 자위했던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었던 2,000년 전 예수의 눈망울을 마주하고 절규합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지옥이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받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편협해서는 안 되는 사랑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걷습니다. 중동의 햇살은 생각보다 따갑습니다. 마치 예수 시대에도 그랬을 것 같은 온갖 냄새와 먼지 그리고 차가운 시선들까지 느껴집니다. 좁고 구부러

진 오래된 예루살렘의 시가지는 우리를 기도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해골(골고타) 언덕 위에 마련된 처형장까지 걸었던 예수만을 따르려고 하지만, 자동소형화기를 둘러메고 냉소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그들을 향해 알아채지 못하도록 적대적인 눈길을 숨기고 가식적인 웃음으로 한숨을 열게 내쉬는 무슬림들 사이에서 장사꾼들마저 우리의 기도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듯합니다. 성당의 불을 모두 끄고 몇 개의 촛불에 의지해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내던 우리의 ‘십자가의 길’ 기도 는 이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골고타 언덕에서 마저 거만하고 거칠게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정교회 사제들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프란치스칸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츠러든 어깨 속에 팽팽한 긴장을 간직한 소수의 콥틱 사제들이 결국 기도를 망쳐버립니다. 내 기도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골고타 언덕을 내려와 예수의 시신을 얹었던 장소에 마련된 돌을 바라봅니다. 나르드 향유가 넘치도

록 문질러대는 정교회 신자들이 웬지 기복적으로만 보여서 잠시 손바닥만 대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야 하고 새치기를 하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득 문지기들에게 눈짓을 하고 뭔가를 쥐어주면서 맨 앞에 줄을 서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도 무덤에서 나오면서 몇 차례나 성호를 긋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치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무덤을 향해서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도 내가 본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숨 쉬는 공간에서 같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다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때야야 비로소 가쁘게 숨을 쉬다가 갑자기 고개가 꺾이며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한 그분의 마지막을 느낍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1요한 4,12)

그분이 사셨던 세상도 이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이 결코 평화와 선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 천대받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특별히 뽑으신 제자들 중 한 명은 그분을 팔아넘기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분의 눈길과 마주치면서도 세 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참담하고 치절하고 비통한 마지막 길을 그분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



▲ 주님의 무덤성당



▲ 주님 무덤성당에서의 콕틱 전례

직 어머니와 몇몇의 여인들만이 그곳 그 어디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그저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 순간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족한 사랑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섰고 그곳에서 더욱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려 골고타에 오셨고 그곳에서 더욱 하느님의 사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때야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그 어떤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

지 않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말하지 않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다정하게 말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의 시간들 속에서 한 가

지 확실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내가 걸어온 발자취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지금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 주님 무덤성당을 걸어 나오며 순례자들은 한껏 기뻐합니다.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은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을!!
섬기지만 지배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죽고 다시는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을!!
결국 이런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결국엔 영원히 다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터뷰

아름다운 동행하는 산우회

인터뷰 : 아름다운 동행하는 산우회 김득남 라파엘 대담 · 정리: 최태교 편집위원

❖ 아름다운 동행하는 산우회(이하 '아동산회')의 출범 계기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10명의 고등학교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2003년 12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모임으로 애경사나 월례 모임으로 일상적인 평범한 모임이었지만 친구의 죽음을 기리며 무엇인가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뜻있는 모임이 되도록 승화시켜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남복지관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강남구 내 복지기관 명단을 받아 우리에게 적합한 곳을 선정한 곳이 하상장애인복지관이었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이고 하상복지관 내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이하 '선교회')가 있어 2004년 3월 20일 선교회 소속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 6분과 저희 친구 9명이 첫 모임으로 대모산을 다녀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도우미가 없으면 운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 조직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시각장애인팀을 장애인팀이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팀'(이하 '아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분이 27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봉사자팀은



▲ 안산자연도시공원(서대문구)에서 봄 기운을 느끼며 테크 길 위에서

동행팀(이하 '동팀')이라고 하는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팀(의사, 간호사, 의대생, 84학번), 명동성당팀, 장충초등학교팀, 동성고등학교팀, 1004팀, 도우미팀 등으로 그룹별로 소속을 정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팀은 5개 팀으로 나누어 팀마다 연락팀장을 두어 모임의 일정 및 참가 여부와 아팀의 개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회에서 연락 및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이후 하상복지관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교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조남길 형제(아팀)의 색소폰 연주

운영위원회를 두어(고문, 회장, 부회장, 역할별 운영위원) 분기별로 회의를 하여 계획 및 개선점을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모임은 매월 셋째 토요일에 기도로 시작하여 장애인들이 걷기 편한 길을 다니고, 저녁 식사 후 아팀을 지하철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봄, 가을에는 시외로 나들이를 합니다. 16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 장애인이나 장년, 노년층이 걷기 편안한 코스를 많이 개발하여 우리가 다니는 곳을 다른 모임에서도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악산 무장애 숲길 쉼터에서 장길수 형제(아팀 시각장애인 웃음치료사)의 하모니카 연주

❖ 최근에 끝난 행사나 조만간 있을 행사 중 함께 나누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매년 12월에는 하상복지관에서 만나 겨울철 미끄러운 길을 피해 양재천을 걷고 나서 지하 성당에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신부님들의 특강(봉사와 믿음, 진정한 행복이란 등의 주제)을 듣고 지하 식당에서 동팀이 준비한 저녁식사를 한 후 송년 모임을 갖습니다.

새해 1월에도 하상복지관에서 양재천을 걷고 지하 성당에서 '드림필 챔버 오케스트라'(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장 김태식 토마스)의 신년음악회로 매년 신년모임을 시작합니다.

❖ 특별히 산우회 활동을 해 오시면서 기뻐했던 일과 안타까웠던 사연을 들려주십시오.

아팀의 경우

아동산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팀의 형제님 한 분(우종명 프란치스코)이 저에게 양로원에 봉사를 다니느냐고 물으시면서 제가 갈 때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 반문하니 자신도 함께 가서 안마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말에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충격을 받

았습니다. 그 후 기회를 마련하던 중 역시 아팀의 자매님(김분순 미카엘라)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발마사지를 가르치신 다음 저에게 양로원을 안내해 달라고 하여 시각장애인 제자들과 함께 한여름 등촌동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발마사지 봉사를 하신 다음 그 자매님이 양로원 원장님께 노인분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시라고 하면서 조그만 성의라고 후원금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본인도 장애인이면서 남을 위해 도움을 나누는 진정 아름다운 분이라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가을 나들이 당시 춘천 김유정역에서 모노바이크를 타고 강촌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아닌 동팀에서 안내하던 한 분이 본인의 실수로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아팀 고문님(류만형 요셉/선종하심)과 부회장님(전운홍 루카) 두 분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다가 운이 나빠 다쳤는데 동팀이라도 우리가 치료비 일부를 후원하겠다고 하는 관대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팀의 경우

13년 전에 항암치료 중 아동산회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면서 항상 웃음을 짓는 동팀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동산회에 와서 암이 완치되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계십니다. 실제 암환자가 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 의학적으로 치료에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만 완치까지 되는 사례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실은 저도 매우 건강하였는데 1998년 12월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 저의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암이야 말로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팀 참가자들은 처음에 시각

장애인을 대할 때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옵니다. 막상 아동산회에 오시는 아팀 분들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농담도 잘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그동안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남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힐링이 되었다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수님(안희창 요아킴)의 경우 신앙심이 깊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겸손한 분이신데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산회에 참석하여 시각장애인들과 음식점에 들어가서 안내할 때 벗은 신발을 챙겨주고(시각장애인들은 단체가 신발을 벗을 때 그 즉시 옆에서 신발을 챙기지 않으면 신발을 다시 신을 때 대환란이 일어남) 식사할 때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장실을 같이 가서 안내하고 헤어질 때 지하철을 태워 주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 후 환자가 진찰실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진찰대에서 내려올 때 시각장애인에게 대하던 습관대로 손을 잡아주면서 신발을 신기 편하게 도와주었더니 환자들이 감동하여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료 의사와 수련의 및 의과대학 제자들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분이 아동산회에 왔습니다. 봉사를 다녀온 후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어 전보다 더욱 친절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대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모 일간지에 적지 않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 의대에서는 아팀이 입원하여 수술을 할 경우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폐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동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안산자연도시공원에서 늦가을 낙엽 길을 거닐며

그들은 처음에는 배타적이고 적응을 하지 못하여 매우 불편해하고 불안해 하였습니다만 아팀 동팀 모두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 주고 칭찬을 자주 하니 점차 인사도 하고 타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표정이 밝아지면서 부모에게 아동산회는 꼭 가고 싶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매우 기뻐하시며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안타까웠던 일은 아팀 두 분이 모임에 참석하려 오시다가 지하철 철로 위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한 분은 8개월을 못 나오셨고 다른 한 분은 1년을 고생하셨는데 아직도 불편하지만 두 분 모두 열심히 참석하십니다.

또한, 아팀에서 참석 신청을 하고 무단으로 30~40% 정도가 불참을 하여 준비한 도시락이 낭비되고 동팀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여 한 분이라도 더 오시라고 하였으나 아팀 참석 예정자가 여러분이 불참하여 오히려 동팀의 도시락이 남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 아름다운 동행하는 산우회 활동에 평신도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참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팀, 동팀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혹은 종교가 없는 분이더라도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팀의 경우 아동산 카페에 매월 모임 일정과 참가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adongsan1004/481>

❖ 계획과 나아갈 방향, 또는 평신도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봉사'라는 단어가 매우 겉연쩍고 어색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비장애인들과 일상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잠시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옆에서 그들의 눈이 되어 주고 함께 친교를 나누고 즐겁게 놀러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산회의 마인드

동팀이 아팀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부분만 옆에서 도와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보다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장애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팀이 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자세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자세를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라 모임시간에 늦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모임을 위하여 각자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산회 컨셉트

배 우 께

남을 배려하고

유익한 모임

유쾌한 모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아동산회 구호

따 따 따!

마음을 따듯하게

생각을 따듯하게

말을 따듯하게

시작기도 후 아팀, 동팀 간의 파트너가 정해지면 아동산회 모든 참석자는 천진난만한 7살 어린이가 되어 "따 따 따"를 힘차게 외치며 출발합니다.

"아동산!" "짱 좋아!"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여러 친구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하는 비장애인 친구들과 건강하고 유쾌하게 놀러 다니게 해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 하상장애인복지관 지하성당에서 개최된 드림필 챔버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주보성인과 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우리엘 여행사 이사

저는 방지거 사베리오입니다

저는 유아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의 주보성인은 '방지거 사베리오'라고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방지거 사베리오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라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피정이나 교육을 갈 때마다 내 세례명이 너무 길어서 명찰 만들기 어려우니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앞의 방지거만 따서 내 세례명을 방지거로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로 오해를 받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 10월 4일에 축하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제 세례명을 방지거라고 하면 방씨냐고 하는 질문을 받드시 합니다. 성당에 방씨인 신자들과 같은 방씨라고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방지거'라는 말은 중국에서 '프란치스코'라는 말에서 음차된 것 같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다 보니 그때의 한자식 세례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Franciscus, Francisco를 중국 사람들은 방지거(方濟角)라고 쓰고 "fran"은 [方], "sis"는 [濟], "cus/so"가 [角]의 중국식 발음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자음 방지거로 읽은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생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06년 스페인 나바라 주의 하비에르 성에서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파리 생트 바르브 대학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냐시오 성인을 만나 예수회 창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540년에 예수회원으로서 첫 번째 선교사로 임명되어 인도와 극동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본에 온 최초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사도', '일본의 사도'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1549년 9월 29일 다이묘 시마즈 다카히사의 초대로 그의 성에 갔는데,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일행이 이곳에서 다카히사에게 화승총을 선물했더니 다이묘가 전도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뛰어난 설교

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중국 선교를 결심하고 중국 내지로 진출하려던 그는 병을 얻어 1552년 중국 광둥 근처에서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그의 유해는 인도의 고아에 안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에 버금가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그가, 개종시킨 사람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도와 일본의 사도'로 162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그를 시성하였으며,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선교활동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회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소화 데레사 성녀와 함께 '포교의 선교자'로 선포하고 12월 3일을 대축일로 지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과 만남

살아오면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과 가까이 만나는 세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4년 말레이시아 파견 근무 시절에 휴가를 내어 말라카로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포르투갈 유적지인 성당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구경 중에 성당 뒷마당에 하얀 조각상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바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었습니다. 전율했던 것은 그 성인의 오른손 팔목이 잘려져 있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인도에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이 썩지 않아 신자들이 이를 로마 교황청이 보고하였으나 로마 교황청이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증거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팔목을 잘라서 로마 교황청에 보냈고 그로 인해 성인으로 시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유해는 오른손 손목이 없는 데 마침 그 동상에도 손목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지만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지요. 옛날 바다 조가비로 만들어진 성인의 조각상이 공교롭게도 오른쪽 손목이 부식되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참 이상한 자연현상이지요?



▲ 말라카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상

My Way, 산티아고 길 위에서



장서운 가타리나 / 서울대교구 세곡동 성당



▲ 나가사키의 성상 앞의 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부부

두 번째 만남은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갔을 때의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인도의 고아를 거쳐 1549~1551년 일본에서 선교를 했고 히라도에 세 번이나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하비에르 상을 세우고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성당'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성지순례 일행 중 세례명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인 이흥기 형제님이 있어 함께 성인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최근이었는데, 2019년 9월 7일

(토) 오후 한국교회사연구소 제201회 연구발표회에 참석한 일입니다. 제1 주제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프로젝트 ‘동아시아 선교’와 적응주의의 탄생”이었고 최영균 신부님(수원교구 호계동성당)과 신주현 신부님(한국교회사연구소)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수호 성인이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과의 깊은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아가는 나

제가 퇴직을 앞두고 크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집사람을 비롯한 친지들의 기도와 “아들과 함께 한 아이슬란드로의 힐링 여행”으로 극적으로 회복된 이후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며 매일미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일미사를 드리면서 미사가 끝난 후 묵상을 하는데 오늘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복음묵상 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주변 신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묵상자료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완곡히 거절하시던 분들도 있었으나, 요약이 잘되고 짧은 시간에 묵상이 가능한 것을 보고는 많은 분들이 받기를 원하셔서 300여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일 복음묵상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교를 하게 된 것이지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이 사도 바오로 이후 최고의 동방 선교 성인임을 비추어 볼 때, 나의 이런 모습은 은연중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을 본받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생각이 듭니다. 



▲ 카스티야이레온(Castilla y León)

유달리도 짧은 지난 여름방학, 정신적 휴양 겸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스페인의 갈라시아 지방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별빛 들뜬 성 야고보란 뜻) 순례길을 걷게 되었다. 순례는 일정한 불편함을 동반하는 모험이자 도전임을 각오했지만 내 몸의 모든 뼈와 근육의 부담감, 발가락에 잡히는 물집들은 온몸에 엄청난 고통을 동반했다. 지난 2~3년간 사전준비를 했지만 오랜 비행에 38도까지 오르는 이베리아 반도의 열기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무거운 배낭을 인생의 무게로 삼고 홀로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걷는 동안, 나는 마치 탐험가 콜럼버스처럼 새로운 지역을 만나면서 내 안의 편견을 깨고 나와 정신과 육체의 회복을 얻었다. ‘카미노(Camino)’란 순례길, 영육간의 여정의 길이였다. 나는 과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성인이 전교를 위해 1천여 년 전에 걸었다는 그 길은 호기심이 들면서도, 기초체력이 약한 내게 체력 시험장 같은 곳이었다. 이곳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에 틀림없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신 이모님 내외분이 10여 년 전 세 번이나 완주하신 곳이지만, 난 그분들의 권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폼페라다에서 산티아고 성지까지 220Km를 약 12일 동안 단기순례자로 걷게 되었다. 스페인은 늦은 저녁 10시쯤 석식을 먹는 문화가 있고 가톨릭 국가라 총기 소지도 안 된다. 산티아고길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안전한 길로 통상 알려져 있다. 다양한 순례자들 덕분에 산티아고는 더 흥미로웠다. 수백 Km를 걸어 한 달 이상 걸려 이곳에 도착하는 순례자들. 그들의 마음속의 ‘어떤 물음표’가 그들을 이 먼 길로 오게 만들었는지,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위대한 창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천장화

고종희 마리아 / 한양여대 교수, 미술사가



▲ 산티아고(장서운 作)



▲ 완주증

그 질문들은 숙성되어 느낌표가 되어 나 또한 이곳에 도착하였다. 걷고 걷다 보니 내 마음은 어느새 주위 경관과 함께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하루 최소 25Km 이상씩 청정지역을 걸으며 길을 잃을까 봐 나침반이 되어준 노란색 화살표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순응'과 '신뢰'로 다가왔고 묵묵히 걷는 이 카미노가 순교의 길임에 순간순간 감동이 되새김되었다. 걷다가 지쳐 잠시 쉬고 있으면 다국적 순례자들이 눈길만 마주쳐도 "올라(안녕), 브엔 카미노.(좋은 순례길이 되세요)"라는 정겨운 주문 같은 인사를 보냈고, 그 인사 하나면 지친 영혼 또한 위로를 얻었다. 저녁에는 스페인어라 이해는 못 하지만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며 서로를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과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였다. 특히 해발 1,300m 높이에 위치한 예쁜 마을인 오세브레이로의 성당에서는 미사 전례 중 제1독서자로서 대표로 나가 영어로 낭독



▲ 화살표

하는 은혜로운 일도 있었다. 오 찬미 예수님! 이 길은 평화의 길,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의 길, 행복과 배려와 확신의 길이라고 표현된다. 이른 시간이 되면 눈을 뜨고 준비하고 하루의 짐과 걸을 수 있음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산티아고에서 얼마나 빠름이 아닌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순례함에 행복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곳은 길도 묵묵히 걷다보면 나아진다고 생각된다. 얼른 학교에 가서 새까맣게 그을린 선생님이 내가 여행 체험담을 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카미노의 여운이 짙게 남아있는 지금 그곳에서 땀에 절고 지쳤을 때 많이 마시던 카페 콘라체가 생각난다. 이 길이 내게 걸어보라고 했기에 갈 수 있었고 벅찬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떠날 카미노 분들에게 당당하게 전한다. Buen Camino! Ultreya(라틴어로 조금 더 멀리!) 



▲ 시스티나 소성당

바티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전 세계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벽화를 보기 위해서다. 그곳은 교황 선출권을 가진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이기도 하니 바티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아흔 살 가까이 장수했던 미켈란젤로(1475~1564)의 생전에 8명의 교황이 바뀌었는데 이 분들은 하나같이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주문하기 위해 교황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미켈란젤로에게 작품을 주문한 첫 교황은 율리오 2세로 베드로 성전을 재건축한 바로 그 교황이다. 두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기로는 막상막하였다. 율리오 2세가 길이 40m가 넘는 방대한 시스티나 소성당의 천장을 프레스코화로 그리라고 명령하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은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니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절대군주에 가까웠던 교황 율리오 2세에게 대놓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유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교황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미켈란젤로는 14m가 넘는 높은 천장에 조수 한 명만 데리고 올라가 무려 4년간 홀로 고독한 작업을 하여 마침내 완성했다.

“물감은 내 얼굴에 흘러서 모자이크를 만들었고, 내 가족은 앞에서 당기어 마치 시리아의 활처럼 휘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했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가족 부츠가 살에 붙어 칼로 도려내는 바람에 비명을 질



▲ 미켈란젤로, 〈예레미야〉(시스티나 천장화의 부분)



▲ 미켈란젤로, 〈다니엘〉(시스티나 천장화의 부분)

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교였다. 그로부터 30년 후 이번에는 예수살이 넘는 노구로 미켈란젤로는 같은 장소에 또 다른 걸작 〈최후의 심판〉을 그림으로써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완성했으니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작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작업을 한 시기는 가톨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은 시기와 일치한다. 천장화가 완성된 5년 후인 1518년,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개신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리되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완성된 4년 후 가톨릭교회는 트렌토 공의회(1545~1563)를 개최하여 프로테스탄트의 반종교개혁에 맞서는 가톨릭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같은 위기의 시기에 하느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가 미켈란젤로로 하여금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교황청의 심장부인 시스티나 소성당에 그리게 함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인류의 시작과 끝의 중심에 있음을 분명히 해주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 년 전 나는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1년을 사이에 두고 미켈란젤로에 관한 논문과 책을 집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두 기관 모두 연구비를 지불하고 책도 출판해주겠다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 무렵 나는 밀라노에서 중요한 전시를 개최한 후 전시가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 이탈리아 몇몇 도시들을 여행할 계획이었다. 특별히 정해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발길 닿는 곳을 순례할 생각이었는데 나의 발길은 생각지 않았던 오르비에토라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벽화가 나오게 된 비밀을 꿰뚫을 수 있었다. 예전에 그곳에 갔었을 때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었다.

오르비에토 대성당은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있다. 피렌체에서 살았던 미켈란젤로는 로마를 드나들며 오르비에토에 들러 대성당의 미술품들을 여러 차례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평범한 예술가가 아니다. 그는 역사상 단 한 명을 꼽으라면 꼽히는 위대한 미술가의 대명사다. 오르비에토 대성당 정면에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한 부조들로 가득한데 바로 시스티나 천장



▲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1508~1512, 프레스코, 시스티나 소성당 천장화, 바티칸

화에 그려진 주제들이다. 이 성당 내부는 또한 당대 유명화가 루카 시노렐리가 그린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형 벽화들로 가득하다. 과감한 색채와 누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들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탄생시켰다.

파괴를 통한 예술의 창조

시스티나 천장화는 길이 40m 폭 13m의 거대한 공간으로 미켈란젤로는 이곳에 7일간의 천지창조와 예수의 재림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의 선조들을 그려놓았다. 시스티나 천장화는 르네상스 미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천장화에서는 르네상스 회화의 절대법칙이었던 원근법이 더 이상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나오기 전인 18세기 말까지 서양회화가 원근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생각한다면 시스티나 천장화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색채 혁명이다. 시스티나 천장화는 90년대에 복원작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수백년 동안 촛불의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색채를 알 수 없었다. 그을음을 벗겨내고 나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니,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현실적 강렬한 색으로 가득했다. 미켈란젤로에게 영감을 준 가장 결정적인 작품은 오르비에토 대성당의 정면 벽화와 내부에 그려진 시노렐리의 그림이었다. 평범한 화가는 모방에 그치지만 천재는 모방하고 파괴하여 새것을 만들어낸다. 미켈란젤로가 바로 그랬다. 



▲ 루카 시노렐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부분), 1500~1504, 오르비에토 대성당, 오르비에토

평신도 양서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내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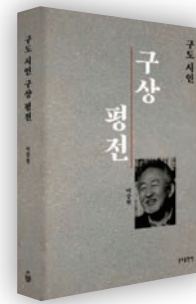
미하엘 티헝거 지음 / 성바오로 / 국판 / 216쪽 / 12,000원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치면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문제, 탈진, 병, 위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 내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라는 말은 그리스어 ‘problema’ 즉 내던져진 것, 앞에 놓인 것, 해결을 위해 제시된 것을 뜻한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의 인생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쳐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목하고 돌이켜보며 깨어 있도록 늘 부름 받고 있다. 주목하며 살 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삶을 값진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 주목은 깨어 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기 위한 열쇠와도 같다. 이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주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주목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의미한다.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 자신과 잘 교류한다는 뜻이다.

기적은 존재한다

베르나데트 모리오 지음 · 조연희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40×205 / 236쪽 / 13,800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아픈 사람이라면 더욱, 자고 일어났을 때 ‘기적처럼’ 고통이 경감되기를, ‘기적처럼’ 병이 낫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마음 한쪽에 있는 소망일 뿐, 실제로는 기적이 일어나 병이 낫는다는 희망조차 없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고통을 견뎌 내며 진통제의 양을 늘리는 사람이 대부분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적은 존재한다. 가톨릭출판사는 모든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기적’이 현실에 존재함을 보여 주는 책, ‘기적은 존재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40여 년간 육체적 고통, 그 고통에 수반되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온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가 루르드에 순례를 다녀와서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야기, 치유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기적임을 인정받은 후 달라진 삶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모리오 수녀는 고통받는 다른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기적을 겪은 사실을 이야기한다.



구도 시인 구상 평전

이승원 지음 / 분도출판사 / 135×200 / 324쪽 / 20,000원

존재의 실상을 응시하여 그 안의 진실을 추구해 간 시인 구상. 구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이 첫 평전은, 구도자요 시인으로 살아간 한 인물의 85년 삶을 복원하려는 뜻깊은 시도다. 구상은 사제가 되는 길을 밟기도 했고, 기자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투신했으며, 6·25 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활동했고, 전후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주의에 천착한 시를 썼다. 소박한 진실이 화려한 수사보다 고귀하다는 문학적, 윤리적 당위에 토대한 구상의 시는 표현 기법과 언어 미학을 중시하는 한국시의 편향적 흐름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으며, 지금 우리에게 과연 시가 무엇이고 그 본령이 무엇인지 무거운 물음을 던진다. 김남조 시인은 이 책에 대한 추천의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이승원 교수의 이 평전은 선도자 중 한 분이신 구상 선생의 탐색과 고뇌 등의 여러 참모습을 가능한 한도까지 찾아서 보여 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구상 선생의 존재감을 더욱 무겁고 귀중하게 드러내 보여 줄 것입니다.”

나이들의 품격

프랭크 커닝햄 지음 · 김영선 옮김 / 생활성서사 / 140×200 / 304쪽 / 15,000원

이 책은 우리의 노년을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 영성 도서이다. 노년의 행복을 오로지 경제적인 것과 육신의 건강에서 찾는 요즘 세태에서, 저자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영성적 이면서도 전인적 자제로 그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한다. 이 책의 원제 ‘저녁 기도 시간 Vesper Time’은 저자가 노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등불을 켜고 저녁 기도를 바치는 이의 모습은 상상해 보라. 만났던 이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일들을 성찰하고 감사해하면서 다시 새로운 하루를 꿈꿀 것이다. 저자는 노년에 이른 이들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은 마치 저녁 기도를 바치는 이 시간처럼 인생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한 시간임을 일깨우면서, 노년기를 보내는 시간야말로 지나온 삶에서 내적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내면과 평화를 위한 광의의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역설한다.

미루지 않는 사랑

반숙자 지음 / 바오로딸 / 153×205 / 276쪽 / 14,000원

수필에는 은근하고 편안한 매력 있다. 난해하지 않으면서 읽는 즐거움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추억에 잠기게 한다. 따뜻한 위로, 기분 좋은 설렘, 짧지만 긴 여운이 있는 글이 수필이다. 여기, 평범한 일상 속에 숨은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향 깊은 수필집 한 권이 있다. 원로 수필가인 저자가 연재했던 청주교구 주보 ‘깊은 골짜기 웅덩이’ 면의 글을 모아, 4부에 걸쳐 모두 84개의 이야기들로 엮은 묵상 수필집이다. 젊은 시절 청력을 잃는 크나큰 고통 가운데서 습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체험, 소소하지만 미루지 않는 사랑이 주는 기쁨, 누추한 일상에서도 부단히 복음적 선택을 하도록 스스로를 재촉하는 의지... 인생의 회로에락이 담겨있어 더 공감이 가는 이 책에서 특히 곱씹는 듯한 저자의 섬세한 문체가 마음을 두드린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는 지난 9월 20~21일 제주교구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80여 명의 교구평협 대표와 회원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개막미사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강 주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우리 신앙 선조들과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임금으로 섬기며 살았고, 자신들을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도 순교자들처럼 당당하게 스스로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인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했다.

미사 후 특강이 이어졌다. 첫 번째 특강은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이하 나옴센터)의 김상훈 사무국장이 〈난민 실태 및 체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자와 등록외국인, 미등록외국인 등 제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나옴센터의 활동을 듣고 각 교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두 번째 특강은 제주교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가 〈3.1 운동과 한국교회의 발자취, 그리고 성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 주교는 3.1 운동 당시 천주교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성찰하면서도,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말했다. 이런 과거사에 비추어, 지금의 한국교회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잘 해내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과거처럼 시련을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에 비추어 살피고,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당당하게 전하며 사회정의가 확립되는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주교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성직자, 수도자와 평신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의견을 모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도출해 내는 ‘공동합의성’을 강조했다.

연수회 파견미사는 김기량성당에서 황태종 신부(제주평협 담당사제)가 집전했다. 미사 후 손병선 회장은 연수회 마무리 인사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등대가 되어 세상을 깨어 비칠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 남은 순교 성월 동안 순교 영성을 이어가는 삶 속에 다가오는 특별전교의 달도 잘 살아내는 평신도가 되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멘 난민을 위한 자선기금을 한 차례 전달한 바 있는 한국평협은 올해도 난민들을 위한 기금을 문창우 주교를 통해 나옴센터에 전달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전시회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1898에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추모전시회를 개최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을 맞아 김 추기경을 추모하는 의미로 준비되었다.

전시회에는 서울평협 회원단체인 서울 가톨릭미술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가톨릭목공예, 이콘연구소, 가톨릭 전례꽃꽂이연구회가 참여하였으며, 추기경을 추억할 수 있는 160여 개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별행사로 ‘캘리그래피 가훈 써 드리기’와 ‘어르신 인물사진 찍어 드리기’ 행사도 함께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평협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 추기경의 삶을 기억하고 추기경이 보여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꾸

준히 이어가기로 했으며, 전시회의 모든 수익금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당인 서울대교구 에파타성당에 기부하여 추모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다.

● 자오나학교 후원회 감사 미사 및 작은 음악회 참석



서울평협 가정생명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 정릉수녀원에서 진행된 ‘자오나학교 후원회 감사 미사 및 작은 음악회’에 참석했다. 자오나학교는 미혼모의 자활을 돕는 공동체다. 서울평협은 작은 음악회에 회원단체인 트리니타스 중창단을 출연시켜 자오나학교의 후원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춘천평협 상임위원 및 평협임원 연수회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담당사제 김혜종, 이하 춘천평협)는 지난 8월 23~24일 인제 다물 피정의 집에서 상임위원 및 평협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실시했다.

첫째 날, 담당사제 김혜중 신부는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ultate)라는 강의 주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참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성덕은 우리의 나약함이 은총의 힘과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2) 회칙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현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둘째 날은 1) 2019년 하반기 사업 추진 방향 2) 2020년 사업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토론했다.

춘천평협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전하며, 내실 있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평협이 되도록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정을 모두 마쳤다.

● 2학기 명도학당 개강



춘천평협은 지난 9월 2일 가톨릭회관에서 담당사제 김혜중 신부와 신자들과 함께 모인 가운데 춘천교구 평신도 신앙의 못자리인 제2학기 명도학당 개강식을 진행했다.

강의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의정부교구 상

지종(베르나르도) 신부의 가톨릭신앙과 가톨릭윤리를 주제로 실시된다. 이번 명도학당에는 1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다.

상지종 신부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 곧 믿음에 따르는 삶을 다루는 윤리신학의 기본적인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특별 공개강좌 실시



춘천평협은 지난 9월 21일 춘천교구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가톨릭 대강당에서 명도학당 특별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 강좌는 평협에서 특별히 교구 80주년을 지내며 교구민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대전교구 김용태(마태오)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신부는 사랑에도 진선미가 있으며 하느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다. 사랑은 1) 내려온다(강생신비, 육화신비) 2) 성찬신비(주는 것, 내어 주는 것) 3)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 내어주시는 사랑(무조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보편적 사랑) 4) 끝나지 않는 사랑(부활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강좌에 참석한 150여 명의 신자들에게 이 시간은 하느님 사랑의 기쁨을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가위 위령미사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동빈, 담당사제 이용권)는 지난 9월 12일 백석 하늘의 문 묘원에서 봉헌된 한가위 위령미사를 주관했다. 신자 200여 명이 참여한 이 미사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정 주교는 "추석 명절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반성하는 시간이고 감사와 나눔의 시간이며, 이웃과 형제와 나누는 시간이다."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낼 때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종 1주기를 맞은 故 구본영 제라르도 신부를 추모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구본영 신부는 자신이 맡은 소명에 충실한 착한 사제였다. 1주기를 지내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추모 인사를 전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마전묘원과 포동묘원에서도 한가위 위령 미사가 봉헌되었다.

●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기념미사

9월 26일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인천평협 주관으로 사제수품 25주년 은경축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는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였고, 홍승모 미카엘 몬시뇰(인천성모병원 병원장), 김일희 빈첸시오 신부(구월1동 본당 주임), 배효식 바오로 신부(역곡 본당 주임), 민영환 토마스 모어 신부(교구 성직자 국장), 한관우 가누토 신부(상동 본당 주임), 강윤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심곡본동 본당 주임)의 사제 서품



25주년을 기념했다.

미사 중 은경축 대상자에게 김동빈 회장과 안연환 부회장이 물적 예물과 꽃다발을 전했으며, 교구장 정신철 주교가 기념 영대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주교는 "지난 25년 동안 교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협 하계 연수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는 9월 28일 단체장 및 임원이 참여하는 하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1박 2일 토의와 피정을 하던 예년과 달리 하루 일정으로 교구 일부 본당과 공소를 순례했으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정선본당~화암공소~영월본당을 순례하며 교구 평신도 회년에 정해진 기도와 묵상을 통해 교구 평신도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의정부평협 '공동합의성(Synodalitas)' 강독반 개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 선교사목 국과 공동으로 최근에 발간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Synodalitas)''을 중심으로 9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의정부에 위치한 신앙교육원에서 강독회를 가졌다.

1차 강독에서는 평신도 신학자 박문수 프란치스코 평협위원과 함께 1·2장을 강독하였고, 2차에서는 교구 사목연구소장 변승식 요한 보스코 사제와 동반하여 3·4장 강독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표방한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뜻을 신학적 깊이와 신앙의 시선으로 헤아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향후 의정부평협은 교구의 여러 단위와 연대하여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실천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과 함께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담당사제 권지호 프란치스코)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8일, 5년째 진행하고 있는 '교구장과 함께하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를 개최하여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 성지를 방문했다.

가랑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시복시성을 위한 교구민



400여 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우리는 순교자들이 피땀으로 지켜서 물려준 보물같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순교자들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해 보자."라고 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협, 제21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사제 서철)는 9월 28일 배티성지에서 제21회 평신도 도보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청주교구 신자 1,50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당일 오전부터 시작된 순례는, 기존에 해 오던 백곡공소에서부터 배티성지까지의 길을 걷는 프로그램에서 복자 오반지 바오로의 묘소와 무명 순교자의 묘를 순례하는 경로로 프로그램을 바꾸었다.

험한 산길을 약 2시간가량 걸어야 하는 험로를 감안하여 노약자 및 노인들을 위한 2코스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1코스는 대성전에서 출발하여 아외성당까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 후 산길을 따라 6인묘,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14인묘, 옛 성당 겸 신학교, 박물관까지 약 2km를 2시간 30분가량 걷는 프로그램이다. 노약자와 노인을 위한 2코스는 대성전에서 출발하여 박물관을 거쳐,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소, 14인묘, 옛 성당 겸 신학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약 2시간 10분가량의 프로그램이다.

성지순례를 마친 후에는 성지 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에는 장봉훈 주교의 미사집전으로 파견 미사를 하였다. 교구 신부 20여 분이 함께 참여하였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회가 9월 27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총회장 한일문, 담당사제 박창균 신부, 평협 상임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뮤지컬 유섬이 경과보고 및 교구청 신축 이전 사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오는 11월 16일 마산 웨딩그랜드 2층 홀에서 교구청

이전사업 제2차 설명회를 겸한 평협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4차 상임위원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종길)는 9월 7일 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은 2019년 사목임원 단체장 하계연수 평가, 순교자 현양 성과발표회 준비, 제15회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준비, 평협 상임위원 피정 준비 등을 논의하였다.

• 순교자 현양 성과발표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9월 28일 가톨릭 상지대 소피아관에서 '순교자 현양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11개 본당 10개 팀이 참가하였다. 북부지구 휴천동, 가흥동의 모듬북, 상주지구 계림동의 드보라 무용단, 교구 사회복지회 영주 보름동산의 풍물패에서 찬조 출연하며 순교자의 정신을 기리고



성가를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권혁주 주교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창작무용극 공연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 사제 김정용)와 순교자현양회는 9월 18~19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창작무용극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빛과 어둠’, ‘부르심에 대한 응답’, ‘주여 임하소서’, ‘아베 마리아’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30여 명의 단원과 함께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주역인 조호석 씨가 김대건 신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쳐 신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 2006년 초연된 이번 작품은 여섯 번의 업그레이드와 20여 회의 공연을 거쳐 김 신부의 고뇌와 희망을 보다 섬세하고 새롭게 재구성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 연출계의 거장인 조주현 감독이 연출을, 광주한국무용단 공진희 대표와 전국무용제 공연미술상을 수상한 유승용 무대감독이 재안무와 무대 디자인을 각각 맡아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총예술감독인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김미숙 교수는 “김대건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첫 사제이자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히고자 했던 근세사의 선각자”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김 신부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이해하고, 김 신부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밝혀주는 불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성 김대건 신부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본받기 위해 마련된 이 무용극 공연은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구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교구 순교자 현양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익금은 가톨릭목포성지 조성과 교구 순교자현양사업비로 봉헌되었다.

● 제8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순교자현양회는 9월 28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관방제림, 죽녹원을 경유하여 담양 천주교공원묘원까지 11km를 걷는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를 개최하였다.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을 주제로 삼은 이번 도보순례의 목적지인 담양 천주교공원묘원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전기수 그레고리오와 고광규 베드로 신학생의 묘소가 있다. 이번 순례는 두 분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 있는 순례였다.

순교자 현양미사를 주례한 옥현진 총대리 주교는 강론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며,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순간”이라며 “우리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 서로 관심을 갖고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나누는 연민의 정을 갖자.”라고 전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통일(統一)은 통이(通異)다’ 강의 개최



전주교구 평단협과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통일(統一)은 통이(通異)다’ 강의가 9월 25일 우전성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및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는 “남과 북은 물과 기름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에 사상과 체제가 너무 달라져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통일은 한민족인 남과 북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비적대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김 교수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쉽고도 인상적인 강의를 전개하며, 특별히 남북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내와 사랑, 열림과 존중의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을 향해 접근하자며 청중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예리하고도 진중한 질문을 제시하는 가운데 열띤 질의와 응답시간이 되었다. 김 교수는 답변을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수차례의 북한방문 체험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통일은 통이다”라는 주제의 참의미를 역설하면서 2시간의 통일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로 사제 및 평협 자문위원단 초청 간담 실시

제주평협에서는 지난 8월 3일 시내 아라미당 식당에서 교구 내 원로사제와 평협 자문위원단을 초청하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평협 회장단은 은퇴 원로 사제 다섯 분과 본회 회장을 역임했던 자문위원 여섯 분을 모시고 그간의 평협 활동 사항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고해 드림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드렸다. 또한 그분들이 지니고 계시는 경험에 따른 평협의 발전방향과 고언을 듣는 유익한 자리였는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 교구단위 단체장과의 연석회의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교구

장이 인준한 단위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

8월 24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평협 임원들과 25명의 단체장이 함께하여 단체별로 추진해온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으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국평협 연수회가 잘 치러지도록 힘을 보태나가기로 함과 동시에, 단체별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 윈윈해 나가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 2019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제주 개최

제주평협이 주관하는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가 9월 20~21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연수회에는 한평 임원을 비롯한 전국 교구 평협 임원들과 단체장 등 80여 명이 함께하였다.(앞의 2019년 한국평협 하반기 연수회 개최 내용 참조)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 제18차 전국 올드레아

제18차 전국 올드레아가 10월 3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개최 교구인 부산교구를 비롯하여 전국 14개 교구를 포함 총 15개 교구가 참석한 가운데 하루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제18호 태풍 미탁은 행사 당일 말끔히 소멸되어 맑은 하늘 아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실제 참석 인원은 개최본부 추산 12,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부산교구의 올드레아 개최는 42년 만에 처음 있는 행사이며 이를 위해 부산교구 2만 2천여 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1년여 간 준비했다. 부산교구 꾸르실로 사무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99일간 모든 본당을 순회하며 고리기도를 봉헌하였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2일간 제18차 전국 올드레아 성공기원 묵주기도 500만 단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3,580명이 참여한 미사 120대와 양팔묵주기도 17,900단, 제18차 전국 올드레아를 준비하는

기도 3,580번을 봉헌했다. 부산교구는 이번 전국 올드레아에 개최지답게 가장 많은 3,174명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양팔기도로 바친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시작으로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박영찬 요셉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진행됐고, 부산교구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110여 명의 사제가 함께 한 기념미사는 본 행사의 절정이었다.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의 축하공연 후 제2부 시간에는 각 교구 주교님들의 축하영상이 송출되었으며 평신도 체험담 ‘뛰어라’ 시간에는 부산교구 제305차를 수료한 이상현 세례자 요한(당감성당) 형제와 제310차를 수료한 이성애 소화 데레사(당감성당) 부부의 감동적인 발표가 있었고 그 후 손삼석 주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두 연사를 안아주며 격려해 주었다. 성시간과 우리의 다짐을 우렁차게 봉헌한 뒤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대표담당사제 김경옥 사도 요한 신부의 인사와 마침기도로 마침내 제18차 전국 올드레아 행사가 성료되었다. 각 교구별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반주 삼아 흥겹고 질서 정연하게 퇴장하여 단 한건의 사고 없이 본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미트(Sports Meet)” 개최



한국 포콜라레운동은 지난 9월 29일 광주대교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스포츠 미트(Sports Meet)”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직접 대면하여 관계를 맺는 일이 적은 디지털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예술 활동을 통해 복음적인 협동을 체험하고 공동체적인 양성을 접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노래와 춤 등 워크숍과 조별 게임 등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60여 명이 참가했고,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가 청소년들과 함께 탁구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포콜라레운동이 1년 전 개원한 광주 포콜라레를 통해 광주대교구 청소년 사목국과 함께 협력해 준비했고, 향후 청소년 정기모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월드와이드매리엔카운터 한국협의회(WWME 한국협의회)

● WWME 한국협의회 주최, WWME 제44차 아시아 회의 열려



WWME 한국협의회(대표팀 방효봉 · 김연옥 부부, 담당사제 이석재)가 주최한 WWME 제44차 아시아 회의(Worldwide Marriage Encounter 44th Asian Conference)가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성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열렸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Call to Holiness)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지역 12개국 대표팀과 아시아 대표팀, 세계대표팀이 참석하여 각국의 ME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5교구 ME 협의회 대표팀을 비롯한 ME 부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폐막미사(염수정 추기경주례)와 Gala Night를 끝으로 성황리에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3년 임기(2020~2022)의 차기 아시아 ME 대표팀으로 필리핀의 로드리고와 레이라니 세나도르(Rodrigo · Leilani Senador) 부부와 인도의 압헤이(Abhay) 신부가 선출되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2019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40주년 기념 및 전국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가

톨릭간호사회가 주관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및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의정부 한마음청소
 년수련원에서 9월 21~22일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14개 교구의 가톨릭간호사 회원 229명이 참석한 이
 번 피정은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를 주제로 하였
 으며, 감사음악회, 참회예절, 고해 성사, 손 축복식, 미
 래비전 선포식, 파견미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
 루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를 돌보며 숨 가쁜 일상을 보내
 던 가톨릭간호사들은 피정을 통해 자연 안에서 하느
 님을 만나며 심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의
 지나온 걸음걸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회고
 하며 감사와 찬미를 올렸고, ‘2029 비전선포식’을 통
 해 새로운 10년을 향해 생명의 돌봄자 가톨릭간호사
 의 영성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다짐을
 봉헌하였다.

한국가톨릭학교장회

●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학교장 연수

지난 2019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가톨릭학
 교장회(회장 송동림 신부) 연수가 경기도 시흥 성 바오
 로의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회원학교장 72명 중 45명이 참석하였
 으며, 가톨릭학교에서의 정체성 강화, 최근의 사립학
 교의 내적, 외적 위기상황에 좀 더 맞갖은 대처를 위
 해 “가톨릭학교의 교육철학과 정체성, 교회문헌에서
 의 가톨릭학교”라는 주제의 강의를 있었고, 강의에 이



어 가톨릭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 나누기, 현실적 문
 제 해결을 위한 종합토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뿐만 아니라 관련 수도회와 협
 력하면서 가톨릭학교 신임교사 연수, 신자교사연수,
 전체교사 연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이사회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경희, 이하 한가협)
 는 지난 9월,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상임이사
 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호남의 첫 사도요 순교자인 유항
 검(아우구스티노)의 고향인 초남이 성지에서 10월 21일
 연수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한가협 임원과 전주교구
 여성연합회 임원들로 이루어지는 연수회는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 받아 가을 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우호적 관계에 있는 아시아 우코 회장
 초청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나 우코 회장
 초청 건은 서울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으로 서울대교구에 역할을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교구 박은영(이사벨라)
 우코 이사가 가톨릭 여성들이 이루어야 할 신앙의 소
 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가협은 가톨릭
 여성의 역할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임
 원들과 함께 은총을 청하며 활동하기로 했다.

Editor's Letter

2019년도의 마지막 호를 발간한다. 금년도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0주기 및 한국의 첫 추기경 서임 5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이다. 봄부터 추기경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지도 이에 발맞추어 봄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나', 가을에는 '작은 김수환 운동' 특집을 편성하였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 바보야'와 '한반도의 평화를 빌어주소서'라는 작품을 표지로 사용하였다. 특집을 통해 사목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어려운 시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생을 보낸 추기경의 모습을 회상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에 충실하였던 자세를 기리고 평신도들이 다시 한 번 그분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사목은 시노드 사목"이라 말씀하신 것에 따라 대전교구의 시노드를 여름호에,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Synodaitas) 실현에 대한 평신도 사도직 연구소의 연구에 기초한 열린 세미나의 내용을 겨울호에 각각 특집으로 게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잡지에도 IT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표지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독자들이 기사의 웹페이지로 직접 접근하도록 하고 본문에도 기사의 내용과 연관된 사항이 있으면 바코드를 첨부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로서 부산 교구장 주교의 인터뷰 기사 끝에 두 개의 바코드를 인쇄하였다. 부산교구 주교좌 남천성당의 외부와 내부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형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운 남천 성당의 모습을 VR로 보면 본인이 방문하고 있는 느낌이 날 것이다.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종이 문헌이 갖는 한계를 일부라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내용은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등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미 내용이 풍부하여 사양합니다. 독자의 투고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얼굴사진과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와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원고가 채택되면 소정의 고료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9년 1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네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협	박진균	안드레아	soilsoul@uca.or.kr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동맹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